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71-01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평가 보고서 (문화·여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지역평가 보고서(문화·여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 총괄, 제1장 집필

장세길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제2~6장 집필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목적 및 평가 대상 ····· 4
3. 평가 내용 및 방법 ····· 5

제2장 문화누리카드로 소외 지역 문화 향유 기회 제공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 9
2. 지역 평가 결과 ····· 11
3. 시사점 ····· 26

제3장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 31
2. 지역 평가 결과 ····· 33
3. 시사점 ····· 44

제4장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 51
2. 지역 평가 결과 ····· 57
3. 시사점 ····· 68

제5장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 75
2. 지역 평가 결과 ····· 82
3. 시사점 ····· 92

제6장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 97
2. 지역 평가 결과 ····· 98
3. 시사점 ····· 111

표 차례

제1장

<표 1-1>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표 ····· 3
<표 1-2> 지역평가 대상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 4
<표 1-3>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목적 ····· 5
<표 1-4> 평가 내용 및 방법 ····· 6
<표 1-5> 위계적 구조를 갖춘 평가지표의 개념과 예시 ····· 7

제2장

<표 2-1>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방법 ····· 12
<표 2-2> 2016년 전라북도 문화누리카드사업 추진 실적 ····· 14
<표 2-3> 전라북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련 계획 ····· 15
<표 2-4> 전라북도의 문화누리카드사업 홍보 실태 ····· 15
<표 2-5> 전라북도 문화누리카드 발급계획 및 이용 독려 계획 ····· 16
<표 2-6> 전라북도 사업 활성화 노력 ····· 17
<표 2-7> 2017년 전라북도 시·군별 가맹점 수 ····· 22

제3장

<표 3-1>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방법 ····· 34
<표 3-2> 연도별·월별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현황 ····· 35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가 있는 날 관련 공모 사업 현황 (2016년) ····· 46

제4장

<표 4-1> 사업 추진 체계 ····· 52
<표 4-2> 방방곡곡 문화공감 예산 추이(2010년~2016년) ····· 54
<표 4-3> 방방곡곡 문화공감 예산 ····· 55
<표 4-4> 방방곡곡 문화공감: 유형별 지원현황(2016) ····· 55

<표 4-5>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유형별 재원 구조 ····· 56
<표 4-6>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역별 지원현황(2016) ····· 56
<표 4-7>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방법 ····· 58
<표 4-8> 2016년 전라북도 지원구분별 사업현황 ····· 59
<표 4-9> 2016년 전라북도 참여 지역 및 시설 ····· 60
<표 4-10> 2016 전라북도 프로그램 참여 현황 ····· 65

제5장

<표 5-1> 2016년 예산현황(전체) ····· 80
<표 5-2> 사업 수혜 대상 선정 방법 및 운영 방식 ····· 80
<표 5-3>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사업(현대미술관): 4개 기관 ····· 80
<표 5-4> 2016년 참여 기관 현황 ····· 81
<표 5-5>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방법 ····· 83
<표 5-6> 2016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어린이청소년도서관) ·· 84
<표 5-7> 2016년 전라북도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민속박물관) ··· 84
<표 5-8> 2017년 전라북도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민속박물관) ··· 84
<표 5-9> 2017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어린이청소년도서관) 85
<표 5-10> 완주 삼례도서관 주요 프로그램 ····· 86
<표 5-11> 2016년 목표 대비 전라북도 참여 인원 수 비율 ····· 87

제6장

<표 6-1>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방법 정량 ····· 99
<표 6-2> 2016년 전북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 100
<표 6-3> 2017년 전북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 100
<표 6-4> 2017년 농어촌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현황 ····· 101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과정 ····· 2

제2장

<그림 2-1> 사업 추진 체계 ····· 10
<그림 2-2> 전북도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과 발급률 추이 ····· 13
<그림 2-3> 문화누리카드로 소외 지역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대한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 25

제3장

<그림 3-1> 임실군 2017년 10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시설 및 프로그램 ····· 39
<그림 3-2>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에 대한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 44

제4장

<그림 4-1>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역별 수혜현황 ····· 54
<그림 4-2> 2016년 (익산시, 완주군) 부분별 참여현황 ····· 60
<그림 4-3>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 68

제5장

<그림 5-1>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실태 ····· 89
<그림 5-2>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 91

제6장

<그림 6-1> 옥천고을 대취타 공연활동 ····· 105
<그림 6-2> ‘감성대화 행복한 소통’의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 109
<그림 6-3> ‘옥천고을 대취타’의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 110
<그림 6-4> ‘할머니 무릎베게’의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 110

서 론

제 1 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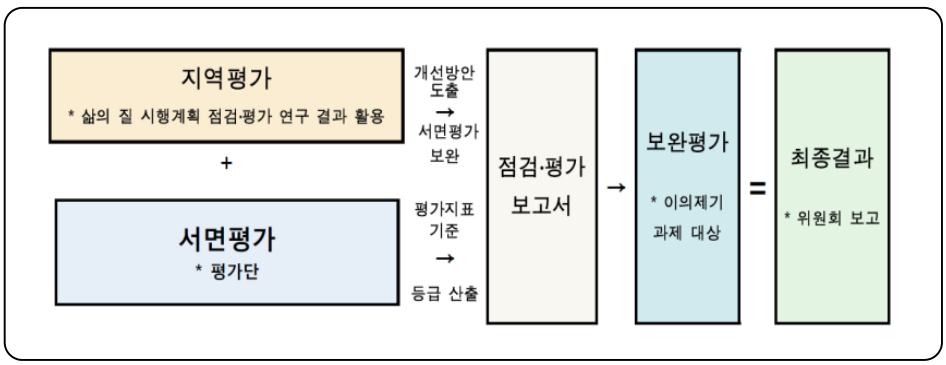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약칭)이 제정되었다. 농어업인삶의질법에 따라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약칭)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맞추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약칭)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2014년에 수립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의 개선책과 환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점검·평가 과정을 진행한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과제를 연도별로 나눠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2019년에는 기본계획 전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평가 과정과 문제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는 지역평가와 서면평가로 나뉘어 수행된다. 삶의 질 위원회에서는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 서면평가를 진행한다.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삶의 질 위원회가 취합하고,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서면평가 결과는 다음해 6월경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1〉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과정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는 '추진실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점검·평가에서는 단순한 실적 집계보다는 더 진전된 수준의 평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하는 추진실적 자료만으로는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표'에 따라 성과를 판단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며, 정책 개선책을 도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안 시행계획 점검평가 2회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정책평가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표 1-1〉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 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1. 계획	1-1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	제3차 기본계획상의 부문별 목표와 비전에 대한 사업 목표의 적합성
	1-2 추진 방식의 합리성	세부 추진체계의 현실 적합성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2. 집행	2-1 집행 및 예산 확보	예산 집행 실적 및 차년도 예산 확보
	2-2 일정관리	추진 일정 준수
3. 성과	3-1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3-3 삶의 질 향상 기여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정도
	3-4 기타 정책효과	정책 환류 노력도, 언론보도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지역평가

삶의 질 향상 계획 서면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서면평가와는 별도로 평가대상 정책에 대한 연구사업인 지역평가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면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풍부하면서도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정책사업 현장에 대한 직접 관찰 및 면담 결과를 토대로 유의미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2016년에 추진한 지역평가에서는 처음이었던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겹쳐 만족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2. 연구 목적 및 평가 대상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위한 지역평가 과정의 하나로 실시되는 것이다.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서면평가를 포함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 점검·평가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교훈을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지역평가는 각 시도 연구원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정책과제별로 분담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2017년 평가항목으로 제시된 문화·여가 부문에 속한 5개 세부과제에 대해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의 개선책과 환류방안 등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1-2〉 지역평가 대상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정책부문	중점추진과제	세부과제명	점검·평가 대상
문화·여가 (5개)	• 소외지역 문화·여가 지원 강화	5-3-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제공	○
		5-3-2. 문화가 있는날 활성화	○
		5-3-3.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
		5-3-4.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
		5-3-5.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

3. 평가 내용 및 방법

▌명확한 평가 목적 설정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지역평가에서는 '석명성(accountability)'과 '교훈(lesson)'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의 점검·평가에서는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관련 자료 수집 및 현장 조사와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미흡했다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점검·평가에서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 평가와 개선 방안 도출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 관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표 1-3〉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의 목적

구분	내용
석명성(accountability)	투입한 재정, 인적물적 자원의 규모가 적절한가?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 시행할 가치가 있는 정책인가?
교훈(lesson)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사례들에서 우수한(또는 부진한) 성과가 나온 원인은 무엇인가?
등급 부여(grading)	여러 정책 실행 단위들 중에 어느 곳에 인센티브/페널티를 줄 것인가?

▌평가내용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지역평가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상 과제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과제별 목적, 추진현황,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을 정리한다. 그리고 실제 정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 과정, 추진 실적, 정책만족도와 파급효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다. 정책성과는 위계적 구조의 평가지표 체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정책의 '투입(input)', '실적(output)', '성과(outcome)'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현장에서 평가대상 세부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개선 및 환류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표 1-4〉 평가 내용 및 방법

구분	평가 내용	방법
대상 과제의 주요 내용	- 세부과제별 목적, 추진현황,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	- 문헌 및 자료 검토
추진실태	- 추진 과정 - 추진 실적 - 정책만족도 및 파급효과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지자체 자료 검토 - 핵심 주체별 면담 조사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수혜주민 등) - 전문가 자문 등
성과	- '투입(input)', '실적(output)', '성과(outcome)'	- 위계적 구조의 평가지표 체계 활용
시사점	- 추진절차 및 체계의 문제점 - 정책 개선 방안 등	

▌평가의 관점

2017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지역평가에서는 정책의 '투입(input)', '실적(output)', '성과(outcome)'라는 위계적 구조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점검·평가하려 시도하였다. 체계적인 평가 과정을 도입하여 점검-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함은 물론, 각 시도 연구원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정에 최소한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투입은 해당 사업 각각에 할당되는 자원 또는 예산과 관련되는 지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 종류와 수량이 투입에 해당

한다. 실적은 정책 사업을 통해 직접 실행된 활동을 측정한 것이다. 매출 등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효과가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사업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 혹은 정책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의 행위나 역량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사업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고용 증가량 등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파급효과(impact)'는 정책사업의 직접적 수혜자 수준을 넘어 지역에 전반적으로 끼친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표 1-5〉 위계적 구조를 갖춘 평가지표의 개념과 예시

지표의 단계별 구분	설명	예(例)
투입 (input)	• 해당 사업 각각에 할당되는 자원 또는 예산과 관련되는 지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 종류와 수량
실적 (output)	• 정책사업을 통해 직접 실행된 활동을 측정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효과(매출 등)
결과 (result)	• 사업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측정 • 정책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의 행위나 역량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	사업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고용 증가량
파급효과 (impact)	• 정책사업의 직접적 수혜자 수준을 넘어 지역에 전반적으로 끼친 영향을 측정 • 해당 지역의 전략적 목표와 관련 • 정책사업의 간접적 효과를 고려	지역의 고용변화, 농업생산성 증가
기준 자료 (baseline)	• 계획 수립 시 설정한 지역발전 목표와의 비교 기준으로 활용	고용률, 소득

문화누리카드로 소외 지역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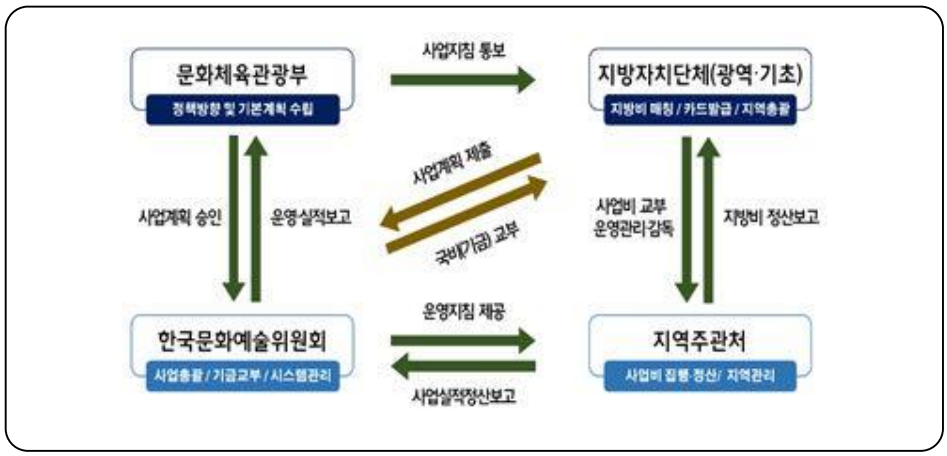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문화누리카드로 소외 지역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이 과제의 사업 목표는 경제적 소외 계층에 문화·여행·스포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 기간: 2004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해당 사항 없음
- 사업 규모: 기초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153만 명 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2016), 765억 원(개인당 연 5만 원)
- 지원 조건: 지자체 보조(국비 지방비 7:3 매칭)
- 사업 시행 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사업주관처)
- 지원 대상(수혜자):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법적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
- 사업 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정책 방향 및 기본 사업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지방비매칭/카드발급/지역총괄↔[지역주관처]사업비집행정산/지역관리(사업비교부 운영관리감독/지방비정산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사업총괄/기금교부/시스템관리(운영지침제

공/사업실정정산보고)↔[문화체육관광부]사업계획승인/운영실적보고↔[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사업계획제출/국비(기금) 교부

〈그림 2-1〉 사업 추진 체계



2016년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 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고령층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카드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가맹점 범위 확대
  -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특화상품 개발 등 선택과 집중으로 문화누리카드 보급 중점 추진
-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손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사업(한복, 한식 등 우수문화상품)과 연계,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활성화 유도
  - 문화누리카드 연중(2월~11월) 발급을 통해 신청자 편의 확대
- 투·융자 계획: 78,520백만 원(기금 등 기타 회계: 55,270백만 원, 지방비 23,250백만 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와 측정산식은 다음과 같다.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수: 2016년 139만 명
- 2015년 목표 155만 명, 실적 164만 명
- 측정산식(측정 방법):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수 집계
- 목표치 산출 근거
- 2016년 카드 발급 사업 예산 765억 원 대비 발급률 91% 적용
* 2015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87.25% 대비 3.75% 상향 설정

2. 지역 평가 결과[1]

이 과제의 실질적 목적은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문화 향유 수준이 양과 질 양면에서 고양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평가는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 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성과 지표로 설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성과 목표(정량적 지표)는 '성과'를 위한 '투입', '실적' 지표로 활용한다.

투입 지표는 첫째, 문화누리사업 예산으로, 여기에서는 전라북도 예산을 다룬다. 둘째,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현황, 참여 인원, 지역별 이용 시설, 기관, 단체, 가맹점 수이다. 셋째,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마지막 투입 지표는 제도 개선과 관련한 실적이다.

실적 지표는 첫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인 참여 인원 수이다. 2017년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을 기준으로 참여 인

[1] '문화누리카드로 소외 지역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 내 1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원과 월별 인원을 측정한다. 전라북도가 수립한 전년 대비 증감 목표에 달성했는지 여부도 평가한다. 둘째,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맹점 수이다.

성과 지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선정된 주요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정성적 측면을 살펴본다. 첫째, 농어촌 주민의 문화 접근성 제고이다. 문화 접근성은 주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정보 제공 여부를 고려한다. 둘째,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카드 가맹점, 지원 기관 등 현황을 종합하여 문화 향유 증진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이 과제가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평가한다. 대표 사례 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한 주민 수나 참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한다.

〈표 2-1〉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방법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투입	사업예산 지원	• 전라북도 지원 예산(2017년 1월 기준)	정량
	이용대상인원	• 문화누리카드 연간 이용 누계(2017년 1월 기준)	정량
	사업홍보 실태	• 언론보도, 공보 등 홍보 현황(2017년 1월 기준)	정성
	제도(지침) 개선 실태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2017년 1월 기준)	정성
실적	참여 인원 수	• 연간 참여 인원 수(2017년 1월 기준) - 전년 대비 증감률, 성과 목표 달성 여부 판단 - 월 평균 이용자 수 측정, 사업 지속성 판단	정량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수	• 가맹점 수 증감(2016년 기준) - 2017년 사업 종료 이전, 2016년 기준 참조	정량
성과	문화 접근성 제고	• 참여 프로그램을 단순 참여 / 비용 혜택 / 적극 참여로 구분, 문화 접근성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고 평가(2017년 기준)	정성
	문화 향유 증진	• 프로그램별 주민 참여 인원, 이용 형태, 주민 만족도, 삶의 질 제고 가능성(2017년 10월 기준)	정성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2016년에 전라북도 통합이용권사업(문화누리)의 예산은 48억2110만 원이었다. 이는 2015년 예산 66억485만 원에 비해서 약 17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2015년에 기획 사업, 이른바 더 누리 사업도 진행했으나, 2016년에 문화누리카드 사업만 진행했다.

2016년 전북에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이 지원되는 저소득층은 약 101,347가구 158,085명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57,956가구, 91,172명이며, 법정 차상위계층은 13,391가구, 66,913명이다.

2016년 기준으로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91,464매(발급예산 45억7320만 원)이며, 발급률은 94.86%이다. 발급자 이용률은 91.97%(42억5411만 원)로 총예산 대비 87.23%의 집행률을 보였다.

〈그림 2-2〉 전북도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과 발급률 추이



2016년도 실적은 2015년도 보다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매수는 2015년도 81,477매보다 8,987매가 더 늘었다. 발급된 예산은 2015년 40억7385만 원인데 비해 2016년도는 45억7320만 원으로 소폭 올랐다. 발급률은 2015년 87.33%에서 94.86%으로 증가했고, 이용률은 2015년 91.75%에서 91.97%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표 2-2〉 2016년 전라북도 문화누리카드사업 추진 실적

단위: 원, %

연도	문화누리카드 총예산(A)	발급매수(B)	발급 예산 (C=B*5만원)	발급률 (D=C/A)	이용예산(E)	발급자 이용률(E/C)	총예산 집행률(E/A)
2015	6,604,850,000	81,477	4,073,850,000	87.33	3,737,940,181	91.75	80.13
2016	4,821,100,000	91,464	4,573,200,000	94.86	4,205,411,308	91.97	87.23

단위: 명, 원, %

월별	발급자 누계	카드발급예산 누계	이용금액 누계	발급률	예산 대비 집행률	발급대비 이용률
2월	31,468	1,573,400,000	191,103,736	32.64	3.96	12.15
3월	58,138	2,906,900,000	812,068,134	60.30	16.84	27.94
4월	64,591	3,229,550,000	1,180,675,982	66.99	24.49	36.56
5월	70,167	3,508,350,000	1,640,757,362	72.77	34.03	46.77
6월	74,251	3,712,550,000	1,960,517,881	77.01	40.67	52.81
7월	77,195	3,859,750,000	2,283,921,241	80.06	47.37	59.17
8월	79,906	3,995,300,000	2,591,991,963	82.87	53.76	64.88
9월	81,957	4,097,850,000	2,847,375,245	85.00	59.06	69.49
10월	86,143	4,307,150,000	3,168,025,461	89.34	65.71	73.55
11월	91,408	4,570,400,000	3,639,187,489	94.80	75.49	79.63
12월	91,464	4,573,200,000	4,206,660,118	94.86	87.26	91.99
'17년 1월	91,464	4,573,200,000	4,205,411,308	94.86	87.23	91.97
합계	91,464	4,573,200,000	4,205,411,308	94.86	87.23	91.97

〈표 2-3〉 전라북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련 계획

사업 영역	주요 내용
신규 가맹점 발굴 계획	• 문화·여행 관련 업체 조사 - 국세청이 자료를 협조하여 가맹 가능 업체 조사 - 문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시·군 업체 현장 조사 -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업체 발굴 - 한옥 마을 및 관광지 문화상품 판매 가맹점 확대 - 신규 가맹점 50개 이상 등록(2015년 74개 발굴)
가맹점 점검 및 관리 계획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전수 조사 실시 - 상반기 중 가맹점 전수 조사 실시(문화 전문 인력 활용) - 가맹점 상태 확인 및 잠재 가맹점 발굴과 관리 - 문화누리카드 매뉴얼 비치, 카드 이용자 편의 도모 - 가맹점 식별 스티커 배부 및 부착 - 적합·부적합 가맹점 연중 점검

문화누리카드 사용은 개인 소지자들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방문하여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일부 고령자와 장애인 등 문화카드를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 기획 사업이 병행되었다. 기획 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게 새로운 이용자를 발굴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카드의 이용률이 높아졌고, 사업의 인지도 또한 향상됐다.

〈표 2-4〉 전라북도의 문화누리카드사업 홍보 실태

사업영역	주요 내용
전라북도	- iTV, 전북도청 홍보영상, 전북도내 행정읍·면사무소 홍보영상 제공, 보도자료, 홈페이지, 전광판 등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로 카드 발급 홍보 - 선 상품 개발, 후 이용자 카드 발급으로 집행률 강화
시·군	- 시군정 소식지, 통리장회의, 기타 방송 및 기념품 홍보 등

사업에 대한 홍보는 지자체에서 총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카드 발급과 이용에 대한 정보는 마을 단위까지 주기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다만, 매해

지침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테면 2016년도 문화이용권사업의 경우 대상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던 기획 사업(더 누리 사업)은 종료되고 문화누리카드 사업만 추진됐다. 그러다보니 카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격·오지 주민, 고령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고, 여러 민원이 발생했다. 문화누리사업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지침이 변경되면서 카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민원이었다.

전라북도가 수립한 2016년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성과 목표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101,347가구 158,085명(기초생활수급자 약 57,956가구, 91,172명, 법정차상위계층 약 13,391가구, 66,913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전년도 대상 인원 116,915명보다 35% 증가했다. 한편 2015년에 문화누리카드와 기획 사업(더 누리 사업) 두 종류로 운영됐으나, 2016년에 문화누리카드 사업만 시행되었다.

〈표 2-5〉 전라북도 문화누리카드 발급계획 및 이용 독려 계획

사업 영역	주요 내용
카드 발급 계획	- 기존 카드 발급자 중 카드사용 이력을 중심으로 재충전 - 신규 수급자 중 카드 사용이 가능한 성인 및 청소년 중심 발급 - 교육청 연계 교육 급여 대상자 및 가족 발급 - 생활시설 단체 및 이용시설 단체 개인카드 발급 - 기존 기획 사업 이용 단체 중 카드 사업이 가능한 단체 발급 -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로 카드 발급 홍보 - 선 상품 개발, 후 이용자 카드 발급으로 집행률 강화
카드 이용 독려 계획	- 발급 개시 전후 정기적으로 시·군 담당자 회의를 실시하여 교육과 정보 공유(카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매월 매주 시·군 발급 및 집행 현황 모니터링 실시(현황을 분석하여 대책 수립) - 카드 발급자 면대면 전달 강화 - 읍·면·동 담당자와 협조하여 관할 지역 이용자 직접 홍보 - 문화 전문 인력을 통해 사각지대 이용자 발굴과 관리

〈표 2-6〉 전라북도 사업 활성화 노력

사업 영역	주요 내용
수혜자 대상관리 추진 사항	• 읍·면·동 담당자 협조로 관할 지역 이용자 직접 홍보 - 생활시설 단체 및 이용시설 단체 카드 발급 홍보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로 카드 발급 및 이용 홍보(11회 진행)
카드 가맹점 발굴 및 관리 실적	• 수시 조사(추가 등록 51개) • 가맹점 홍보(37곳 스티커 배포)
사업 활성화 추진 내용	• 찾아가는 문화 장터 유치 -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한 공예품 장터 유치 • 나눔티켓 활성화 관련 실적 및 회원 유치 관련 성과 등
문화누리카드 정보 안내	• 언론보도, 전단지/포스터 배포, 문자발송 - 보도자료 5회 배포, TV/라디오 뉴스, 신문 언론보도 102회, 문자 발송 3회 7,496통 - 주민센터 및 주요 시설 홍보물 배포 -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한 마을 홍보와 개별 유선 홍보 진행
카드 이용률 제고 추진 내용	• 문화누리카드 이용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언론보도, 할인 공연 및 가맹점 안내 등) 총 102회 실시 • 사용자 지역과 잔액을 고려한 맞춤형 문자 3회 7,496건 전송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실태 파악, 가맹점 목록 중 실제 가능한 가맹점 확인(1,502개 사용가능, 51개 신규 발굴)

2.2. 현장 사례 조사 결과

일차적으로 부안읍 사무소의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부안 문화 시설 가운데 하나인 마실 영화관을 방문하여 가맹점 현장 조사를 수행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부안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관장과 사무국장을 면담하였다.

방문 시설	부안 마실극장(작은영화관)
담당 직원	배진경 관장
주요 내용	작은영화관은 2014년 개관되었다. 영화관 규모는 작지만 동시 상영관이므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람하고 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는 관객이 많다. 연세가 있으신 여성들이 많이 찾고, 노부부, 가족 순으로 이용한다. 정확하게 관객을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 일부 청소년들이 방문하지만 많지 않은 편이다. 수협이 주관하는 여성 바우처 프로그램과 혼돈될 경우가 있다. 연중 무휴이지만 요즘 비수기라 평일 관람객이 적은 편이다. 문화누리사업을 위해 별도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누리카드 소지자들이 알아서 잘 이용한다.

방문 시설	부안군 종합사회복지관
담당 직원	이춘섭 관장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지금도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송대관 공연을 관람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공연 관람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너무나 행복했다고 한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장애인복지관은 문화누리사업이 크게 도움이 된다.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동하기 어렵다. 장애인은 모셔오는 서비스에 기대가 크다. 누군가와 함께 어느 곳을 간다는 과정이 더 기쁘고 보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준다. 관장 입장에서 문화누리사업에서 기획 사업이 없어진 것이 무척 아쉽다. 종합사회복지관이자 장애인종합복지관인 이 곳에서 문화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행사를 몇 번 열면서 모두가 문화누리사업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 복지관이 문화누리카드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각자 쓰기 때문인데, 이왕이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일에 카드를 쓰면 좋겠다. 문화누리카드가 공공 영역에서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 계신 분들은 즉각 반응한다. 이들은 소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문화누리카드를 쓸 곳이 많이 없다. 숙박업소가 많은 데, 그나마 영화관이 있어서 미리 카드로 다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문화누리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는 상황이 이해되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사람이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고 누리사업으로 여러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모처럼 관계자를 보니까 반갑다. 예전에 군청에서 문화 복지 담당자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소식을 알려주니까 이곳 분위기가 참 좋았었다. 그런 기획 사업이나 이동 서비스 같은 사업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

현장 사진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이춘섭 관장과 직원]

방문 시설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담당 직원	배인재 관장
주요 내용	2012년부터 문화누리사업을 이용하였다. 문화누리사업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모셔오는 서비스와 공연장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자리 배치(제일 앞에서 기관장들과 함께 보는 것)등 장애인들에 큰 힘이 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진안군에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나 가맹점들이 없어서 이용이 불편하지만 사업단에서 추진했던 기획 사업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 무엇보다 사업 내용을 설명해주고 해서 장애인 조건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후에 기획 사업도 없어지고, 전문 인력도 없어지니까 사실 잘 모르겠다. 그냥 사업이 개별화된 것 같아 관장이지만 특별히 생각나지 않는다. 기획 사업이 있을 때는 확실히 만족도가 높았다. 최근에 진안의 문화 여건은 많이 달라졌다. 일단 작은 영화관이 생겼고, 읍·면에 목욕탕도 생겼다. 그리고 곧 승마장도 생긴다고 들었다. 그래서 예전만큼 문화 시설이 없어서 장수로 가서 영화나 목욕을 하러 가지 않는다. 요즘 장애인 복지관뿐만 아니라 이 지역 노년층들은 온천 문화가 생겼다. 목욕탕에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인데 이것은 읍·면에 목욕탕이 개설되었고, 5,0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화누리카드로 진행되는 것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이동 문제가 있다. 장애인들에게는 이동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문화 관람이든 뭐든 사실상 어렵다. 예전처럼 문화시설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어서 분명히 환경이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부족한 것은 정보이다. 나는 혜택 받는 80%보다 받지 못한 20%를 생각한다. 문화누리카드관련해서 큰 문제는 우선,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 정보가 없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이장이 중요하다. 이장이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사용 여부가 판단된다. 어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둘째로 최근 신용카드에 대해서 비호감이다. 원인은 보이스 피싱이다. 이른바 금융 사기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신용카드를 찢는다.

	내가 보기에 지역에 문화 자산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진안에 아주 유명한 무용과 교수가 살고 있다. 그런데 아는 이가 없고, 어설픈 공연으로 어른들 앞에 공연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최근, 그는 진안 명소를 찾아 무용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정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사람은 1명인데 중복되는 것도 많다. 기관 시설, 주민들이 모여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정보도 교환되고 농촌 인력의 한계도 조금이나마 보완될 것 같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정량적 수치만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문화 격차 해소라는 사업 목적이 달성됐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소 왜곡된 점이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성과가 정량적 통계에 의해서 왜곡될 소지가 크다.

농어촌 지역은 문화시설이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고령인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카드 이용이 여전히 낯설어 불편을 느끼며, 다른 바우처 카드와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한다. 더 큰 문제는 카드를 사용할 가맹점 정보를 잘 모르고, 안다고 하더라도 이동하는 수단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취약 계층은 문화누리카드를 환영한다. 사용하는 것에 만족을 표한다. 그래서 카드 발급과 소진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한다. 전체적으로 카드 이용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들이 희망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는 시사점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만든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소외 계층에게 오히려 불편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례 지역인 부안군만 보더라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대부분 숙박업소이다.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숙박업소에 쓰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사업 추진 방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어촌에서 문화누리사업의 성과 목표는 카드발급과 이용률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질적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 농어촌 주민

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도록 성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체계가 변경되어야 한다.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전라북도 통합이용권(문화누리)사업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은 2015년 87.33%에서 2016년 94.86%로 7.53% 증가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매수는 2015년 81,477매에서 2016년 91,464 매로 전년 대비 112%로 증가하였다. 2016년 전라북도 저소득층이 158,085명인 것을 감안하면 문화 소외 계층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수와 이용자 수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화 소외 계층 이용자 수는 다소 차이가 났다.

2015년까지만 해도 문화누리카드 사업 외에 기획 사업, 이른바 문화 더누리 사업이 병행되어 카드소지자가 아닌 문화 소외 계층 34,264명에게도 문화 향유 기회가 제공되었다. 2015년에 문화누리카드와 기획 사업(문화더누리)의 인원을 합하여 전체 통합 이용권 사업 이용자수가 115,741명이었다. 2016년에는 기획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한 수만 집계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문화 소외 계층의 전체 이용자 수는 2015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가맹점 수는 3,039곳이었다. 그런데 2016년 기획 사업이 종료되면서 가맹점 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가맹점 수는 1,499곳이다. 2017년에는 지역 주관처의 신규 가맹점 발굴에 힘입어 2016년보다 조금 늘어난 1,549곳이었다.

〈표 2-7〉 2017년 전라북도 시·군별 가맹점 수

시·군별	상세내역						
	소계	도서	음반	영화	기타(문화)	여행	스포츠
소계	1,549	247	16	23	433	819	11
전주시	557	116	8	8	188	231	6
군산시	175	29	1	2	33	110	
익산시	183	51	3	1	45	82	1
정읍시	100	9		1	25	64	1
남원시	105	9	1	2	45	48	
김제시	57	5	1	1	15	35	
완주군	66	7	1	1	16	39	2
진안군	33	2		1	8	21	1
무주군	60	1		1	10	48	
장수군	30	5		1	8	16	
임실군	25	3		1	3	18	
순창군	28	1		1	10	16	
고창군	48	3		1	11	33	
부안군	82	6	1	1	16	58	

전라북도 지자체를 시부(6개)와 군부(8개)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누리카드 가능 발급 매수는 시부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66,774명과 76,518명이었다. 군부 8곳은 2015년에 19,771명과 2016년에 19,904명이었다. 6개 시부의 이용 대상자가 평균 71,646명인데 비하여 8개 군부 이용 대상자는 평균 19,837명이었다. 시부와 군부의 발급매수 비율이 73 대 27인 것이다. 이는 인구가 많은 시부가 군부보다 이용 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부의 이용률은 122,856명 대비 실제 발급매수 대비 이용률은 92.92%이다. 군부는 실제발급매수 대비 이용률은 92.20%로, 시부와 군부의 격차는 0.7%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수치는 군부의 행정기관이 얼마나 홍보를 열심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군부의 경우 행정기관을 제외하고 문화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용자 대부분이 인터넷 기반 이용정보를 얻는데 어려운

고령자이다. 문화누리카드이용자 수가 적은 군부에서 읍·면 행정기관 담당자가 노령의 농어촌 이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용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시부와 차이가 거의 없는 이용률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시부와 차이가 없는 군부의 이용률)는 정량적 통계만을 봤을 때 이야기이다. 실제 이용실태를 보면 문제가 많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접근성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카드사용 가맹점이다. 2015년 전라북도 가맹점은 총 3,039곳이고 이 가운데 시부는 22,98곳, 군부는 741곳으로 약 3배의 차이가 난다. 2016년에는 전라북도 1,499곳 가운데 시부가 1,175곳, 군부가 364곳으로 편차가 더 커졌다. 기존에 가입됐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기획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부안군은 2015년 기준으로 가맹점이 203곳이었다. 전라북도 군부 중에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았다. 전라북도 전체 3,039곳의 가맹점 중에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다음으로 많은 가맹점 수를 보유했다. 그런데 2016년에는 기획 사업이 중단되면서 가맹점 수가 203곳에서 80곳으로 급감했다.

시부와 군부의 가맹점 수 격차가 크다는 것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려는 이용자가 접근하는 데 제약이 된다. 군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은 시부와 차이가 나지 않으나, 가맹점이 많지 않아 특정 가맹점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등 군부 이용자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가맹점이 거의 없는 지역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거나 교통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문화 향유의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정책방향과 비춰봤을 때, 군부의 카드 이용자는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시부와 큰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이용률이라는 정량적 통계만으로 이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현장의 문제를 왜곡할 소지가 있음을 말해준다. 문화 향유의 '다양성'을 위한 문화 접근성이 새롭게 고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부안군의 카드 발급 대비 이용률은 2015년 93.46%, 2016년 96.28%이다.

2015년 전라북도 전체 평균 이용률이 91.75%, 군부 평균 이용률이 92.80%라는 것을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안군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부안군의 가맹점 80곳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숙박업소 등의 여행 관련 가맹점이 58곳, 체험이나 축제 등 기타 가맹점이 15곳으로 전체 대비 91%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가맹점은 도서 6, 영화 1곳이다. 여러 유형 가운데 체육과 음반은 가맹점이 없다.

문화와 관련된 가맹점이 줄어든 결정적 이유는 기획 사업이 사라지면서다. 그나마 부안군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숙박업소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 전체 가맹점 수가 많은 것이다. 실제 문화 향유와 관련된 시설은 도서를 제외하고 영화관 1곳뿐이다. 기획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역 주관처와 현장 활동가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모셔오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발해 제공하고, 관련 기관의 가맹점으로 가입시켜왔다. 그런데 기획 사업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발굴되는 가맹점이 줄어들고, 기존에 행사를 위해 가입했던 가맹점들이 빠져나가면서 실제 문화를 향유할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수가 작은영화관을 이용하였다. 작은영화관이이지만 시설이 좋은데다가 도시와 똑같이 동시 상영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예술회관 등에서도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교통편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부안군 이용자들이 문화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책을 구입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 외에는 없다. 문화 향유의 편식을 부추기는 열악한 환경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가 수립한 이 과제의 정량적 목표는 달성하였으며, 기획 사업이 중단되면서 발급 매수와 발급률이 변화하였으나 발급 대비 이용률은 전체적으로는 증가하였다. 또한 농어촌 지역(8개 군부)에서 시부(6개)와 큰 차이 없이 이용률의 성과(전라북도 전체 시부와 군부의 이용률 격차 0.7%)를 보이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문화이용권사업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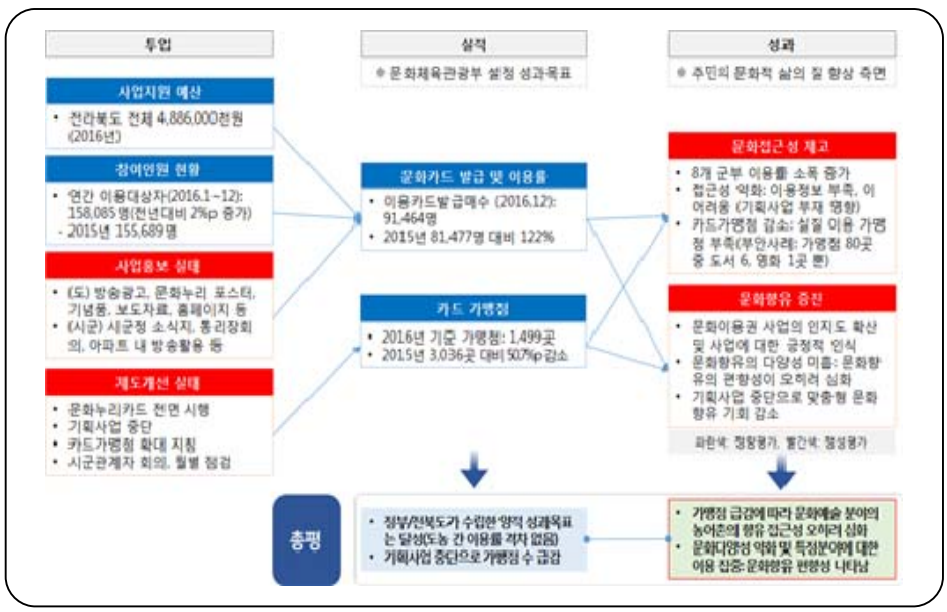
그러나 문화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에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기획 사업이

중단되면서 가맹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농어촌 지역일수록 문화누리카드 이용의 접근성이 악화되었고, 실제 문화 향유의 편향성까지 나타났다.

통합이용권 사업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문화누리카드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방안은 이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홍보를 대행하고 재능 기부를 확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종합하면,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 이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림 2-3〉 문화누리카드로 소외 지역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대한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3. 시사점

3.1. 성과 목표의 한계와 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

이 과제의 성과 목표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률을 성과 목표로 삼다보니 실질 이용내용에 관한 만족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이용자, 고령 노인, 장애인에게 가맹점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데, 이용률로만 사업을 평가하다보니 사회적·지리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의 사안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문화 소외 지역의 농어촌 주민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수령받아 이 카드가 적용되는 가맹점에서 개인이 결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수령 받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가맹점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특히 농어촌 고령자들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이들은 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이 익숙하여 카드를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차기년도 문화누리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편법으로라도 카드 이용 금액을 소진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문화누리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동 지역 이용자의 이용률과 읍·면 지역 이용자의 이용률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누리사업의 정량적 평가 지표의 핵심인 이용률을 비교하면 도시와 농촌 간 이용률은 도시의 동 평균이 91.5%, 군 단위의 읍·면 평균은 93.2%로 오히려 읍·면 지역의 이용률이 높다. 이 결과로만 보면 농어촌 지역이 문화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도시와 문화 격차가 해소되었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3.2. 접근성의 부족

읍·면 지역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들은 문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이나 행사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누리카드 사용은 본인이 직접 현장을 이동하여 카드로 구매하고 문화를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의 경우는 생활권이 아닌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다. 이 사업에서 이동 편의가 따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보 접근성 또한 문제가 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현실은 고령자 또는 장애인 기타 오지에 거주자들은 문화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문화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를 누릴 수는 없다. 이들에게 문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역시 현재로는 부족하다.

지역사회가 통합이용권 사업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던 초기에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일종의 복지사업을 강조하면서 오로지 예산투여 대비 이용자 수에 천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활용하던 기존의 성과는 사라지고 있다.

3.3. 농어촌 삶의 질 측면에서 성과 목표 설정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측면에서 성과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기반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취약하다. 이용자들은 고령이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문화정보를 접하기에는 인터넷 이용능력도 떨어진다. 제공자(가맹점) 또한 경제 소득이 가능할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문화누리사업은 도시농촌 구분 없이 일원화된

발급률와 이용률로 설정되어 있는 성과 목표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3.4. 기획 사업(더 누리 사업)의 재추진

2015년까지 기획 사업(더 누리 사업)이 진행됐으나 2016년부터는 기획 사업이 중단되고 카드 사업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획 사업은 자발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층, 격·오지 주민 등 대상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이 중단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에서는 한해 45,000명이 이용할 정도로 농어촌 지역 및 장애인 단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사업이다. 그러나 2016년 문화누리사업이 전면 카드제로만 운영되면서 기획 사업으로 누렸던 문화 향유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

정부에서는 문화누리카드제로 운영 중인 사업을 별도 기획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왔다. 그렇지만 문화누리사업에서 기획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는 매우 만족도가 높고 선호되는 사업이다. 문화 격차 해소와 농어촌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실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기획 사업이 재추진되어야 한다.

3.5. 시·군별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대도시의 경우 문화누리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농어촌 읍·면 주민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문화누리사업은 이른바 문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적 약자의 문화 소외를 극복하는 활동이 전개될 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역사회(문화단체,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문화시설 및 기관, 기타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등)가 공동으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화누리사업은 지자체가 카드를 발급하고, 도 차원에서 주관처를 운영하며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통로가 거의 없다. 그나마 기획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단체나 개인들이 동참하였는데, 기획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마저도 사라졌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자생적인 문화보기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농어촌 시·군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거나, 지자체별로 중간지원조직 또는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 문화, 체육 분야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제3장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문화 시설의 이용 가격을 할인해주고, 문화를 향유하도록 정시 퇴근 운동을 전개하며, 다양한 기획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 기간: 2015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 사업 규모: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30억 원(1000만 원×108회×12월)
- 지원 조건: 직접 수행, 민간 경상 보조(정액 지원)
- 사업 시행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 지원 대상(수혜자): 전 국민
- 사업 추진 체계: 기본 사업계획 수립 → 보조 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검토 및 교부 결정 → 보조 사업자 사업 수행 → 진행 사항 점검 → 결과 보고 및 정산, 평가
- 법적 근거: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2016년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 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고령층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카드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가맹점 범위 확대
  -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특화상품 개발 등 선택과 집중으로 문화누리카드 보급 중점 추진
-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손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사업(한복, 한식 등 우수문화상품)과 연계,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활성화 유도
  - 문화누리카드 연중(2월~11월) 발급을 통해 신청자 편의 확대
- 투·융자 계획: 78,520백만 원(기금 등 기타 회계: 55,270백만 원, 지방비 23,250백만 원)

'2016년 문화가 있는 날'의 사업방향은 "지역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활성화,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 및 참여 분야 확대 등을 통한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이다. 계획 예산은 130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와 측정산식은 다음과 같다.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 수: 2016년 2,300개
  - 2015년 목표 1,800개, 실적 2,081개
- 측정산식(측정 방법)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전체 참여 프로그램 수를 조사,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월의 수치로 파악(전수 조사)
- 목표치 산출근거
  - 문화융성의 핵심사업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2015년도 실적치(2,081개)보다 200여개 이상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2,300개로 목표치 설정

2. 지역 평가 결과[2]

이 과제 이름은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이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 많은 문화 시설과 문화 단체가 이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홍보해주며,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제의 실질 목표는 사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활성화된 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고 기회가 확대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 문화 향유 수준(양적, 질적)의 제고가 이 과제의 목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평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세운 성과 목표(참여 프로그램 수)를 성과 지표로 설정하지 않고 이 과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즉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과 기회 제공'을 성과 지표로 설정할 것이다. 대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과제에 내세운 목적(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는 '성과'를 위한 '투입'과 '실적' 지표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투입 지표는 문화가 있는 날의 예산이다. 농어촌 지역 문화가 있는 날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된 예산을 살펴본다. 두 번째 투입 지표는 문화가 있는 날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전체 기관·단체·시설 수이다. 세 번째 투입 지표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마지막 투입 지표는 제도 개선과 관련한 실적이다.

실적 지표는 첫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인 참여 프로그램 수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참여 프로그램 수가 가장 많은 월의 참여 프로그램 수로 측정한다. 전라북도가 수립한 전년 대비 증감 목표에 달성했는지 여부도 판단한다. 두 번째 실적 지표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인지도를 실

---

[2] '문화누리카드로 소외 지역 문화 향유 기회 제공 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 내 1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적 지표로 삼는다.

성과 지표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또는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정량적 측면에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정성적 방법으로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개 군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정성적 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한다. 첫 번째 성과 지표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 접근성 제고이다. 지역 주민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되, 두 가지 특성이 중복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단순 참여(개방 시간 연장), 비용 혜택(입장·관람료 할인 또는 면제) 적극 참여(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별 프로그램 수를 측정한다.

두 번째 성과 지표는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 실태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한 문화 향유 증진 여부를 판단한다. 즉 이 과제가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대표 사례 현장을 방문하여 행사에 참여한 주민 수나 참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한다.

〈표 3-1〉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방법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투입	사업예산 지원	• 전라북도 지원예산(2017년 10월 기준)	정량
	참여 기관 현황	• 월별 참여 기관 수의 연간 누계(2017년 10월 기준)	정량
	사업홍보 실태	• 언론보도, 공보 등 홍보 현황(2017년 10월 기준)	정성
	제도 개선 실태	• 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노력(2017년 10월 기준)	정성
실적	참여 프로그램 수	• 참여가 가장 많은 월 프로그램 수(2017년 10월 기준) - 전년 대비 증감률 측정, 성과 목표 달성 여부 판단 - 월 평균 참여 프로그램 수를 측정, 사업지속성 판단	정량
	사업 인지도	• 조사통계: 사업 인지도의 전년 대비 비교 (2016년 기준) - 2017년 사업 종료 이전, 2016년 기준 참조	정량
성과	문화 접근성 제고	• 참여 프로그램을 단순 참여 / 비용 혜택 / 적극 참여로 구분, 문화 접근성 및 문화 향유 기회 제고 평가(2017년 기준)	정성
	문화 향유 증진	• 프로그램별 주민 참여 인원, 참여 형태, 주민의 적극성, 삶의 질 제고 가능성 등 분석 (2017.10 기준)	정성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2016년에 전라북도에서 문화가 있는 날로 책정된 별도 예산은 없다. 2017년에는 전라북도 자체 사업비와 홍보비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이 책정되었다. 현장 조사 사례지역인 임실군은 2017년에 문화가 있는 날로 책정된 군비는 없었다. 다만 임실문화원이 한국문화원연합회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라북도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월별 기관·시설의 수의 연간 누계(2~10월. 2017년과 비교를 위하여 2014~2016년도 2~10월까지만 측정)는 2014년 434개소, 2015년 723개소, 2016년 1,169개소, 2017년 1,365개소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기관이 양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문화가 있는 날에 전라북도에서 참여한 기관과 시설은 전체 160곳이다. 주요 참여 기관 및 시설은 다음과 같다.

- 공연장: 한국소리문화전당, 전북예술회관, 전주덕진예술회관 등
- 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군산설림도서관, 장수군립도서관 등
- 휴양림: 변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운장산자연휴양림 등
- 박물관·미술관: 전주박물관,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전주미술관 등
- 영화관·문화재: 롯데시네마, CGV, 작은영화관, 경기전 등
- 기 타: 전주창작지원센터, 익산문화원, 진안문화의집 등

〈표 3-2〉 연도별·월별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현황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	32	40	42	50	50	57	62	39	62	58	39
2015	42	50	60	75	85	83	88	93	90	99	117	86
2016	81	89	102	114	120	125	124	171	167	157	160	127

2016년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도민 인지도는 2015년 조사 시점인 8월의 37.7%에 비해 16.1%p가 증가한 53.8%(2016년 5월 기준)이다. 참고로 2016년 5월 기준으로 전국 인지도는 전라북도 인지도보다 3.8%p 높은 57.6%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사업홍보는 사업 활성화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목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전라북도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인지도를 중요한 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전라북도의 홍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라북도) 얼쑤전북, 생생TV, 보도자료, 홈페이지, 전광판 등
- (시·군) 시군정 소식지, 통리장회의, 아파트 내 방송활용 홍보 등

전라북도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도민의 참여율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는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문화관, 교동아트미술관, W미술관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 총 1억 원을 지원했고, 전라북도가 제작한 상설 공연 입장료를 할인(50%)하였다. 시·군은 참여 기관 수를 늘리기 위해 공공시설별로 개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참여 유도 외에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없었다. 한편, 전라북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얼쑤전북, 생생TV, 보도자료, 홈페이지, 전광판(이상 전라북도), 시군정 소식지, 통리장회의(이상 시·군) 등을 활용하였다.

전라북도는 2017년 문화가 있는 날의 성과 목표를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달에 참여 프로그램 수 200개로 설정했다. 이 수치는 2016년 대비 58%p가 증가한 것이다. 전라북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정례화 추진
  -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집중
  - 예산이 확보된 기존 공연 외에 소규모 공연 위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박물관·미술관의 관람료 무료·할인 확대 추진
- 공공·작은도서관, 문화원 인문 강좌, 독서토론회 등 프로그램 강화

• 민간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시 '문화가 있는 날'에 프로그램 유도
- 지자체와 재단의 각종 공모에 '문화가 있는 날' 공연에 가점

• 공공문화시설 대관료 무료·할인 등 추진
- '문화가 있는 날'에 대관 시 공공문화시설 대관료 무료·할인 검토

•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인지도와 참여율 제고
- 온라인: TV 자막방송, 생생TV, 홈페이지, 전광판 등
- 오프라인: 얼쑤전북, 시군정 소식지, 통리장회의, 홍보전단 등

2.2. 현장 사례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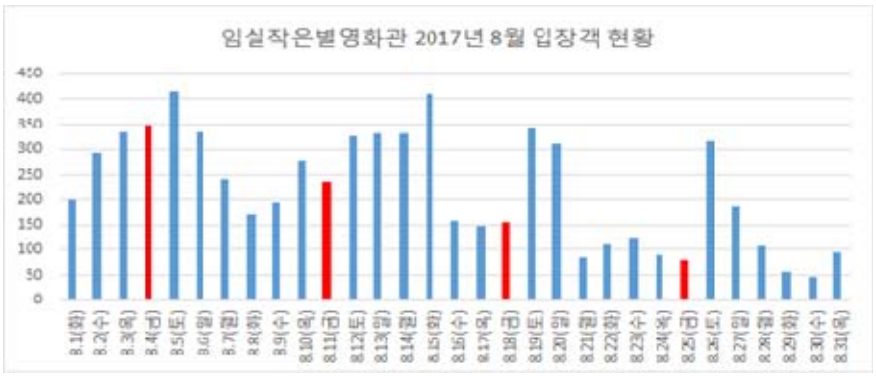
임실군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개 시설과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문 시설	임실 신평 생활사 박물관
담당 직원	천세민 주무관
주요 내용	평소에 일반 관람객이 거의 없다. 간혹 전주시 등 타 지역에서 단체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개방하지 않고, 사람들이 방문할 때 개방한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사업은 개방 시간을 저녁 6시에서 7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인데,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 예전에 이곳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주민모임을 갖기도 했는데, 새롭게 신평 문화 회관이 생기면서 주민 문화 활동이나 주민 모임도 이곳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 사진	 [신평 생활사 박물관]  [신평문화회관]

방문 시설	임실 군립 도서관
담당 직원	이진희 주무관
주요 내용	2016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진행했다. 자료실은 당초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는데,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저녁 9시까지 자료실을 개방한다.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동절기에 연장하려고 했지만, 실제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개방을 하면하면 간혹 아이를 데리고 저녁 산책을 하던 가족이 방문한다. 주변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오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방문한다. 주로 어린이 자료실에서 아이들 책을 함께 보며 시간을 보낸다. 연장 개방한 시간에 이용자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많이 와야 5팀(가족)이 방문한다. 군에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구상하라고 해서 다양하게 고민했는데 실제 이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 많지 않다. 2016년에는 영화를 야간에 상영했지만 관람객이 없었다. 도서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개봉한 지 6개월이 지난 영화 DVD만 상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본 것이기 때문에 오지를 않는다. 4~5차례 진행하다 중지했다. 처음에 야간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나, 면 지역이라 거주 인구가 많지 않아 주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대상의 문화 체험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가 수요일에 일찍 끝나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에 실시한다.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진행하고 있다. 참가비가 없으면 참가 학생이 많은데, 재료비 등을 받으면 참여자가 적어진다. 예산이 지원되면 좋기는 하지만, 솔직히 오수면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이 없다. 물론 많은 예산이 내려오면 장기 프로젝트를 처음 부터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일회성 단기 행사와 같이 이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현장 사진	 [참여행사 안내문]  [임실군립도서관 전경]

방문 시설	임실 작은별 영화관, 임실 문화원
주요 내용	(작은별 영화관) 2016년부터 매마수(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1,000원씩 할인하고 있다. 수요일에 1,000원을 할인한다고 해서 특별히 관객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다. 화요일에 영화를 보려다가 수요일에 1,000원 할인하니까 그때 보자는 식으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관객이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다. (임실문화원) 한국 문화원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 매달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동호회, 모임 등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인문학 강좌를 무료로 하는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 홍보를 위해 포스터, 현수막을 제작하여 읍내 곳곳에 부착하였다.
현장 사진	 [작은별 영화관]  [임실 문화원 행사 안내]

〈그림 3-1〉 임실군 2017년 10월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시설 및 프로그램



방문 시설	임실 공공 도서관
담당 직원	김란주 주무관
주요 내용	우리는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다. 대출 두배로 데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모든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 두배로 데이에 참여하면 홍보 배너를 제작해서 제공해준다. 그런데 대출 두배로 데이에 참여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 이유에서 현재 철거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는 1인 당 5부를 대출 부수로 정해놓고 있다. 우리는 원래부터 대출 부수를 두 배로 늘려 1인당 10권 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가 있는 날에는 대출 권수를 20권으로 늘리고 있지만, 현재에도 10권 이상씩 대출을 하는 이용자가 없다. 대출 두배로 데이를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상관없다. 정부 추진 사업인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어렵다. 만약 별도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특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사진	 [김란주 주무관]  [임실 공공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운 목표만 놓고 보면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설 및 기관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이 없다. 이로 인해 실제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개방 시간 연장이나 대출 부수 확장 등 비예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는 별도로 추진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해오던 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날로 시간을 옮겨 진행하였다.

양적 측면에서 참여 프로그램 수가 늘어났지만 실제 운영되는 내용이 형식적으로 치우친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전라북도는 시·군에 참여 프로그램 수 증가를 독려하였고, 정부 합동 평가의 지표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시·군은 공공시설과 기관을 중심으로 비예산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도록 하면서 형식적 참여가 많아졌다.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많지 않다는 점을 임실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개방 시간을 연장하거나 대출 부수를 늘려주는 것으로는 지역 주민을 문화 시설로 유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임실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임실 문화원을 제외하고 4개 기관에 지역 주민이 특별히 방문하거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성과 목표를 무엇으로 책정하는지에 따라 시·군의 참여방식이 달라지며,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을 유인할 방도가 없다는 점을 임실군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결국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과제가 실제로 농어촌 현장에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 목표가 다시 설정되고 그에 맞는 예산(국비, 또는 지방비)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전라북도에서 2017년 참여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월인 10월 문화가 있는 날의 참여 프로그램은 185개이다. 2016년에도 참여 프로그램 수가 8월에 171개로 가장 많았다.

2016년 대비 2017년에 참여 프로그램 수가 약 8.2%p 증가하였다.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이 약 72.7%p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전년 대비 목표 증가율인 10.5%p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7년 월 평균 참여 프로그램 수는 136.5개로, 2016년 월평균 참여 프로그램 수 116.9개보다 많았다. 2017년은 10월을 제외하고 월별 참여 프로그램 수의 차이가 크지 않다. 양적 수치만을 놓고 전년과 비교했을 때 사

업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을 기준으로 인지도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민의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인지도는 53.8%(조사시점 5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에 조사한 인지도인 37.3%과 대비했을 때 2016년에 16.1%p가 증가하였다. 참고로 2016년 기준 전국 평균 인지도는 57.6%이었다.

14개 시·군 중에서 8개 군 지역만의 참여 프로그램 48개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단순 참여(시설 개방 시간 연장, 대출 부수 확대)가 8건이며, 비용 혜택(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또는 면제)이 34건, 적극 참여(특강, 교육·체험 프로그램, 공연)가 6건이다.

단순 참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관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1인당 최대 대출부수 5권을 10권으로 늘려주는 '대출 두배로 데이'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현장(임실)을 방문한 결과 대출 두배로 데이를 이용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개방시간 연장 역시 문화 접근성 제고(야간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는 거의 없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제공되는 비용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작은영화관의 관람료 1,000원 할인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과 기관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지역 내 시설 및 기관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유료인 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은영화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지는 않았다.

적극 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특강 운영, 인문학 강좌 운영, 공연 무료 관람 등이었다. 이러한 행사는 지역 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시설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특별히 행사를 추가한 것보다는 기존에 계획되었던 사업을 문화가 있는 날에 개최하는 것이 많아 실제 지역 주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

려웠다.

임실군 사례를 보면, 2017년 10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시설 중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한 인원은 신평 생활사 박물관이 0명, 임실 군립 도서관이 15명(어린이 프로그램 참가자), 임실 공공 도서관이 0명, 임실 문화원이 50여 명이었다. 작은별영화관은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영화관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람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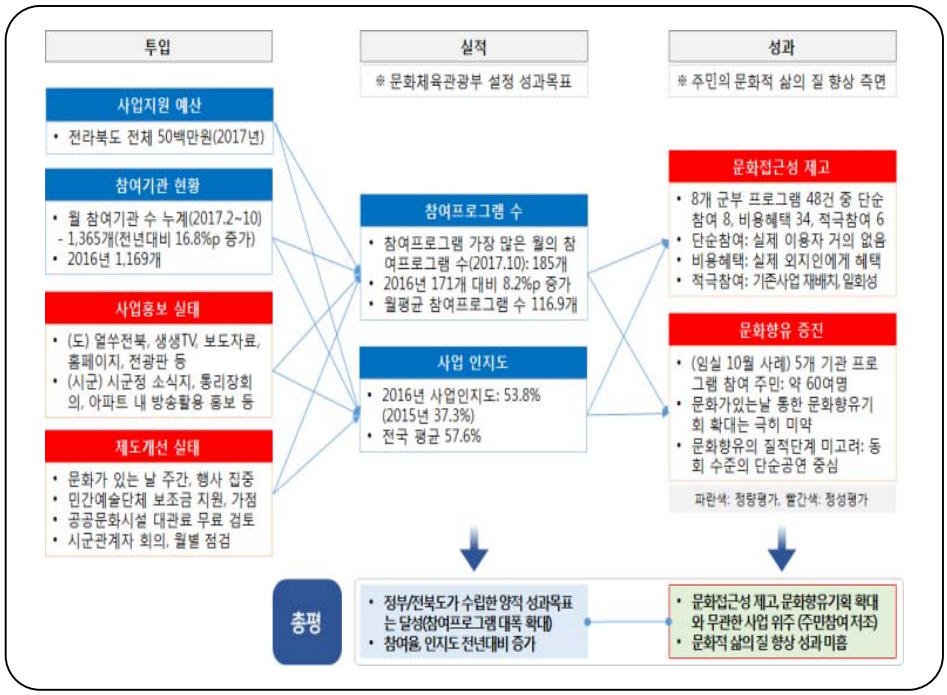
문화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 향유를 하는 지역 주민은 임실 군립 도서관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15명과 임실 문화원의 공연 무대와 인문학 강좌에 참여한 50여 명이 전부였다. 문화 접근성을 높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겠다는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율이다. 단순 참여 및 비용 혜택 관련 프로그램 대부분(작은영화관 제외)은 당초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던 것이었다. 즉 현재 운영되는 48건 중 38건은 지역 주민과 무관하게 지역 외 사람들(대개 관광객)을 위한 사업인 것이다.

공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지역 동호회(예, 난타, 청소년댄스그룹)의 공연 무대 등이 많아 문화 향유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또한 모든 행사가 단발성 행사에 그쳐 단순관람-문화교육-창작활동-공동체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 향유의 단계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가 수립한 이 과제의 정량적 목표(참여 프로그램 수)는 달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인지도도 전년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가 있는 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공 및 민간 시설과 기관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과제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참여 프로그램 대부분이 가장 기본적 목표인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목표와도 무관하였다. 대부분의 시설과 기관이 형식적 측면에서 행사를 기획하였다.

〈그림 3-2〉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에 대한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3. 시사점

3.1. 성과 목표의 한계, 재설정 필요

현재 설정된 이 과제의 성과 목표는 농어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시설별로 참여한 프로그램 수를 성과 목표로 삼다보니 각 시설과 기관에서 형식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정량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부 합동 평가의 지표 역시 대상 시설과 기관이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비율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프로그램의 질과 무관하게 행사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평가 지표가 이러하기 때문에 저녁 6시까지 개방해도 주민이 찾아오지 않던(아예 평소에는 문을 열지 않고 관람객이 올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고 있다) 박물관을 7시로 개방하기로 보고만 하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 성과 목표는 프로그램 수가 가장 많은 달의 프로그램 수가 기준이다.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성이 중요하다. 즉 1년 365일 언제라도 찾아갔을 때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수를 하나의 지표로 설정하더라도 특정 달의 프로그램 수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설·단체가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를 반영한 성과 목표가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

3.2. 지역과 무관한 공모사업, 시·군별 자율공모방식 필요

2016년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문화가 있는 날과 관련하여 추진한 공모사업은 모두 7개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동일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와 주요대상이 다를 뿐이다.

임실군 사례에서 봤듯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기관 사업은 예산이 없어 형식적 참여에 치우치고 있다. 이에 반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받은 기관은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다만 공모사업의 특성상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모에 참여한 단체의 성격을 반영한 사업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시·군 자율공모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계층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 주민 전체 혹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특정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표 3-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가 있는 날 관련 공모 사업 현황 (2016년)

기관	사업명	예산	내용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동(洞)!동(童)!동(動)! 문화놀이터	3,000천원 내외(1일 1회 기준)	'문화가 있는 날'에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아동 보육 교육시설에서의 공연개최 비용 정액지원
생활문화 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권역별 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권역당 25백만원 내외 지원, 300백만원 내(총 25개 내외 프로그램)	권역별(지역 내/지역 간) 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 지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문화재단 참여 활성화 간접 지원	프로그램(1회 문화가 있는 날)당 3백만원 내외(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16 문화가 있는 날 〈정부부처 협력사업〉 지원	1회 당 기준으로 최대 5백만원, 단체 당 평균 2회 내외 배정 가능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프로그램 지원	17개 이상(최소 80백만원 ~ 최대 160백만원)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주요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기획 프로그램
예술경영지원 센터	문화가 있는 날' 우리동네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총 400백만원 내(40개 내외 프로그램 각 단체별 10백만원 내 지원)	마을 생활권 주민, 동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 교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축제 개최 지원 등
한국문화원연 합회	지방문화원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활성화 사업 공모	97,317천원(10개 내외)	주민대상 교육·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경비

3.3. 주민의 문화적 삶이 아닌, 외지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전라북도 8개 군 지역의 전체 48개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31개 사업이다. 이 중에서 도서관의 '대출 두배로 데이'는 8개이다.

지역 주민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은 17개이다. 박물관·미술관의 무료관람, 자연휴양림·야영장의 할인 등은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니어도 지역 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기보다 대부분 외부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가 있는 날의 상당수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위한 기회 제공보다 외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기능이 더 크다.

3.4. 도·농 문화 격차 심화 우려, 농어촌 삶의 질 성과 목표 설정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으로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은 도-농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킬 여지가 크다. 앞에서 살펴봤듯 농어촌 지역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참여하는 주민도 많지 않다. 이에 반해 도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고, 주민의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제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 많다.[3]

도시 지역은 저녁에 닫혀 있던 문화 시설을 개방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개방 시간을 연장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즉 문화가 있는 날의 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이 구분되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은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또는 모셔오는 문화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농한기, 농번기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닌, 문화가 있는 '달'을 설정하여 지역의 문화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즉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성과 목표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박물관·미술관 관람료 할인이나 개방 시간 연장은 제외, 야영장·휴양시설 등 관광 시설의 프로그램 제외)의 수와 수혜자를 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

3 서울에서 박물관 무료입장과 원래 무료입장이 농어촌 지역에서 개방시간 연장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문화 향유 측면에서의 효과가 다르다.

매년 일정한 증가율을 반영한 성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3.5. 시·군 단위 자율 공모형 국비 지원

앞에서 살펴본 임실군 사례는 예산지원이 없는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특정 기관을 통하여 특정 대상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주민 전체에게 수혜를 주기 어렵고, 지역 상황이 고려되기 힘들다는 사실도 말해준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다보니 대부분 기존 프로그램 예산을 문화가 있는 날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은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되다보니 특정 지역에 쏠리는 현상도 발생한다.

농어촌 지역에서 문화가 있는 날이 활성화되려면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2017년부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지역문화진흥원이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면 한다. 문화 격차는 시·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지역 역량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3.6.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문화시설의 참여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 문화 단체의 참여이다. 시설을 개방하더라도 문화를 향유할 줄 모르는 계층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지역에서 문화 역량을 갖고 있는 문화 단체가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질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호회 수준의 예

술행사를 아무리 관람하더라도 전문 음악인의 공연을 한번 보는 것만큼의 감동을 주지 않는다. 농어촌 주민의 문화 향유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4장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사업 목표는 전국 방방곡곡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나누어 소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문화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역 문예회관 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제고하고, 문예회관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목표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 기간: 2016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150억 원(2015년 예산: 80억 원)
- 사업 규모: 문예회관 430곳 내외
- 지원 조건: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사업 시행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 지원 대상(수혜자): 전국의 지방 문예회관(서울 지역 문예회관 제외)
- 법적 근거: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 23조 제3항 제4호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 제16조, 제18조, 제38조

〈표 4-1〉 사업 추진 체계

기관명	역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총괄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추진 방침 확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추진 관리 감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업 실행 관리 - 예술 단체 선정 및 프로그램 보급 - 문예회관 배정 - 사업 관리(공연 변경, 추가, 공연 요청 대응 등)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평가 총괄(수시 모니터링 등) • 홍보 총괄
협력기관(지방문예회관)	• 공연 신청 접수 • 사업 및 공연 홍보 • 소외 계층 30%이상 의무 초청 준수 •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 성과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수행 단체 (민간/국립 예술단체)	• 프로그램 신청 • 공연 실행

2016년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민간 및 국립 우수 공연 프로그램 유통', '지역 문예회관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발굴', '비활성화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이다. 또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와 측정산식은 다음과 같다.

-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수: 2016년 목표 550,501명, 실적 654,982명
- 측정산식(측정 방법): Σ(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수 집계)
- 목표치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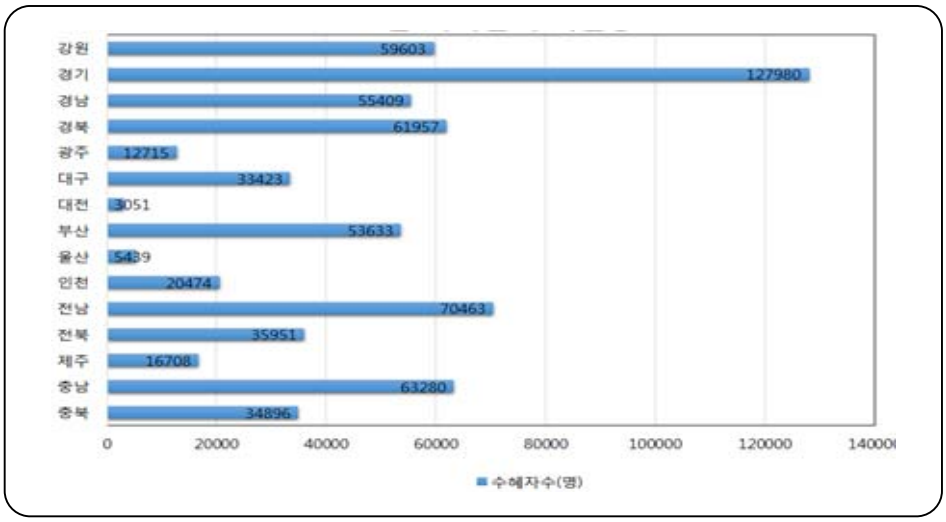
-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목표를 부여(편차)하는 방식의 산식을 적용하여 550,501명으로 설정

- 산식: 전년도 실적 + 1 × 표준편차(과거 5개년)
- 2011년 ~ 2015년 연평균 증가율(표준편차) 4.3% 반영

본 사업은 서울 지역 문예회관을 제외한 지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립 예술단체의 공연을 지원하여 대도시와 지방 간 문화 향유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려는 시도이다. 더불어 지역 문예기관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운영 경비 및 우수 공연의 초청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문예기관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문예회관의 공연(일부 전시회 포함)을 지원하는 구조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 현황을 복권 기금 투입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전남이 14.6%로 가장 높다. 곧 민간 공연단체의 우수 공연, 국립단체의 우수 공연,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2016년에는 438개의 문예회관, 328개의 작품, 2,136회 공연을 지원했다. 전년 대비 가장 큰 변화는 예산 증가 및 지원 유형에 대한 세부 항목의 추가이다. 예산은 전년 대비 87.5%가 증가한 150억 원이다. 지원 유형에 새롭게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예산배정: 31억5000만 원)이 추가되어 지원 프로그램의 선택폭이 커졌다.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전체 수혜자 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인 550,501명 보다 104,481명 많은 654,982명(달성률 118.9%)으로 파악된다.

〈그림 4-1〉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역별 수혜현황



자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016),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결과보고서, 46쪽.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문예회관 공연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보기에 다소 어렵다. 그러나 소외 계층 의무초청 비율(2016년 30%)을 설정하고 있어 소외 계층 공연관람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016년에는 관람자 가운데 소외 계층은 35.7%(233,925명)로 의무 초청 비율을 초과 달성했다.

〈표 4-2〉 방방곡곡 문화공감 예산 추이(2010년~2016년)

단위: 백만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지원: 복권 기금	4,800	4,800	4,800	4,704			
(구)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고	2,500	3,375	3,035	2,883			
(신)방방곡곡 문화공감: 복권 기금					7,983	8,000	15,000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2016 복권 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표 4-3〉 방방곡곡 문화공감 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원 대상	복권 기금	지방비	계
가. 사업비		14,400	8,591	22,991
민간 예술단체 우수 공연	전국 문예회관 (서울 제외)	7,800	5,672	13,472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	전국 문예회관 (서울 제외)	3,150	749	3,899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전국 문예회관 (서울 제외)	3,000	2,170	5,170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	재정이 열악한 비활성화 지역문예회관 (서울 제외)	450	-	450
나. 운영비		600	-	600
총 소요예산		15,000	8,591	23,591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2016 복권 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표 4-4〉 방방곡곡 문화공감: 유형별 지원현황(2016)

단위: 개, 건, 회

지원유형별	지원현황			
	지원기관 수	지원작품 수	지원건수	지원횟수
민간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	256	192	503	703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	81	26	84	103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지원	85	85	85	1,292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16	25	29	38
합계	438	328	701	2,136

자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016),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결과보고서, 27쪽.

〈표 4-5〉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유형별 재원 구조

단위: 천 원

지원유형	복권 기금	지방비	합계	지원비율
민간 예술단체 우수 공연	7,822,047	5,672,194	13,494,241	광역시 및 도립: 40% 지원 재정자립도 20% 이상: 50% 지원 재정자립도 20% 미만: 60% 지원 순수예술: 재정자립도 관계없이 70% 지원 (단, 35,000천 원 이하)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	3,495,034	748,786	4,243,820	광역시 및 도립: 70% 지원 재정자립도 20% 이상: 80% 지원 재정자립도 20% 미만: 90% 지원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2,520,586	2,169,709	4,690,295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선정 심사 시 지원 금액 결정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프로그램	535,960	-	535,960	프로그램 유치 시 공연료 전액지원
합계	14,373,627	8,590,689	22,964,316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2016 복권 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표 4-6〉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역별 지원현황(2016)

단위: 개, 원, %

지역	지자체 문예회관 수요	수혜 문예회관 건수	지원금액(원)	지역별 지원비율(%)
강원	19	16	1,541,794,090	10.73
경기	35	26	2,085,170,100	14.51
경남	20	16	1,414,042,900	9.84
경북	26	18	1,692,266,300	11.77
광주	8	3	149,060,000	1.04
대구	11	9	405,197,500	2.82
부산	11	11	710,077,106	4.94
대전	3	1	31,450,000	0.22
울산	5	4	202,860,600	1.41
인천	8	8	346,625,100	2.41
전남	19	19	2,100,008,390	14.61
전북	17	11	1,011,734,000	7.04
제주	3	3	319,327,110	2.22
충남	17	16	1,735,712,400	12.07
충북	13	12	628,301,000	4.37
합계	215	173	14,373,626,596	100.00

자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016),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결과보고서, 46쪽.

2. 지역 평가 결과[4]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예회관을 문화 향유를 위한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문화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예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 및 창작 역량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 대신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문예회관 활성화를 이 사업의 성과 지표로 설정한다. 투입 지표는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과 지원 프로그램 수로 설정한다. 실적 지표는 수혜자 수와 만족도로 설정하여 성과 지표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도록 한다.

세부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투입 지표는 2016년 전라북도에 지원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예산이다. 두 번째 투입 지표는 전라북도 내에서 진행된 지원 프로그램 수로 세부 영역별(4개 부문) 프로그램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적 지표 중 첫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인 수혜자 수이다. 수혜자 수는 문화 향유 측면이라는 점에서 전라북도 지원 프로그램의 전체 관람 인원을 측정한다. 이와 더불어 성과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전년도 관람 인원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 실적 지표는 수혜자 만족도로 이는 정량 및 정성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현재 정량평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여 문예기관의 사업 진행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그러나 표본의 수가 적고 수치화된 지표만 제시되어 있어 사업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정성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업에

---

4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 내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대한 개선 방안 및 요구 사항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 지표는 2016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을 2곳 선정하여 정성적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성과 지표 첫 번째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이며 두 번째는 지역 문예회관 활성화로 익산 및 완주에서 사업을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 및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출하도록 한다.

〈표 4-7〉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방법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투입	사업 예산	• 전라북도 지원 예산(2016년 기준)	정량
	지원 프로그램 수	• 지원 프로그램 현황 파악	정량
실적	수혜자 수	•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 수 파악 - 전년 대비 증감률 측정, 성과 목표 및 의무 달성 여부 측정	정량
	수혜자 만족도	• 프로그램 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장르별 선호도 조사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지표로 활용	정량 정성
성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프로그램 참여 인원 및 문화 접근성 확대 제고 여부 평가 • 문화적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작품 접근 가능성 고려 • 문화예술관련 관심 확대 및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정성
	지역 문예회관 활성화	• 문예회관 자체 공연 기획 가능성 확대 • 문예회관 프로그램 관련 주민의 인지도 및 개선점 수렴	정성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복권 기금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5% 증액됐다. 복권 기금뿐 아니라 지방비 매칭(37.4%)이 이뤄지는데 지방비 비중은 지원유형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은 복권 기금 비중이 높고, 시·군별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복권 기금 비중이 높다. 2016년 사업 전체 예산(2016년 전체 집행예산: 14,373,567,596원) 중 전라북도가 차지한 예산은 1,011,734,000원으로 전체 지원 금액에 7.04%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 증가로 예산 투입은 지난해보다

상당부분 올라갔지만, (2015년 전체 집행예산: 7,567,701,270원) 전년도 지원 비율은 7.7%로 예산 대비 지원 비율이 0.66% 감소했다.

전라북도는 2015년에는 총 3개 사업 영역 중 37개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6년 진행된 사업은 사업영역이 4개로 확장되었고 전라북도 각 시·군 지역이 다양하게 참여하며 총 48개 프로그램이 지원 받았다. 새로 추가 된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에 6개 시·군 지역 (고창, 군산, 부안, 익산, 전주, 정읍)이 수혜를 받았으며 전주시(도립)를 제외하고는 80%이상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프로그램의 증가는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작품 선택의 폭을 넓히며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다양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또한 문예회관의 공연 가동률을 높여 지역민의 문화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문예회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전라북도는 2016년에 총 11개 지역에서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 지역 중 무주, 진안, 임실 지역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5년에 진안이 진안문화의집에서 사업에 참여했지만, 2016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무주, 진안, 임실 모두 문예회관이 없거나 체육 시설과 통합된 문체회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시설의 한계 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표 4-8〉 2016년 전라북도 지원구분별 사업현황

지원구분		지원현황(건)
민간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	중·대규모	24
	소규모	11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		6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	공연 기획	4
	전시 기획	2
	특별 기획	·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1
	합계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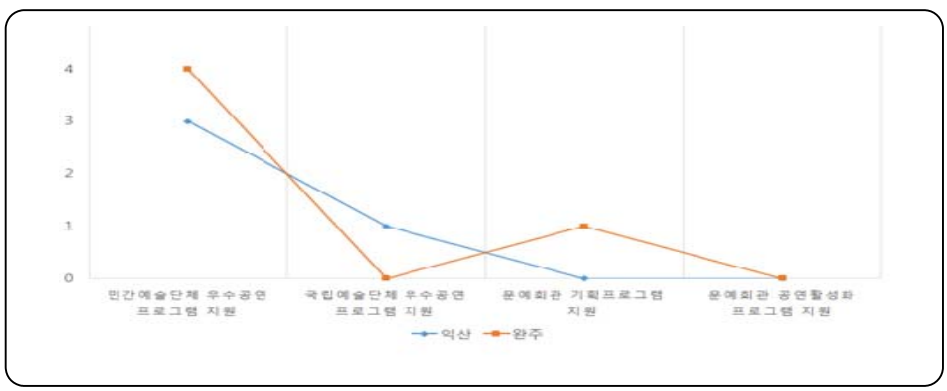
〈표 4-9〉 2016년 전라북도 참여 지역 및 시설

지역	시설명
고창군	고창문화의전당
군산시	군산예술의전당
김제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남원시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순창군	향토회관
완주군	완주문예회관
익산시	익산예술의전당(솜리문화회관)
장수군	장수한누리전당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2.2. 현장 사례 조사 결과

현장 조사는 11개 시·군 지역 중 총 2곳(익산시, 완주군)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익산시는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577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은 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3,020명이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 프로그램을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2016년 (익산시, 완주군) 부분별 참여현황



방문 시설	완주군청
담당 직원	정선옥
주요 내용	•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사업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 완주군은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뮤지컬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 이는 뮤지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다른 사업에서 다른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꿈다락에서 뮤지컬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 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완주군 자체적으로 버스대절과 같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 지원 하고 있다. • 우수 공연의 경우 공연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문예기관 자체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은 기관의 경우 부담이 크다. • 프로그램 선정 절차 과정에서 민간 예술단체 중 신규 공연단의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순수예술의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관객들의 수요가 낮아 관객을 채우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선정을 하는 경우가 낮다. 순수예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사업비 지원 퍼센트를 확대해야 한다. • 문예회관의 기획 공연은 의무공연 횟수를 3회 이상으로 하다가 5회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장 사진	 인터뷰 사진  완주군 문예회관 전경

방문 시설	익산예술의전당
담당 직원	김정배
주요 내용	• 현재 익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20% 미만으로 공연비의 60%를 지원받고 있다. • 소외 계층 의무 초청비율을 채워야 하지만 이를 위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틀이 마련되지 않아 부담이 있다.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객석 수의 30%에서 들어 온 관객의 30%로 바뀌었다. • 소외 계층에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중복 수혜가 가능해지며 선택하며 즐길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 오히려 이는 문예회관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문예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공연을 관람하는 공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구성이나 지원 등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가 번거롭다. 행정 절차 문제로 민간 예술단체에서도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나 실태 조사는 용역을 통해 별도로 수행되며 조사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사업 실행에 반영하기 어렵다.
현장 사진	 인터뷰 사진  익산예술의전당 전경

익산시와 완주군 사업담당자들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지역민의 문화 향유 및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담당자들은 파악된 수혜자 수요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대표성이 떨어지며 평가 영역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 개선 사항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원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신청이 실행기관의 의사만으로 수용되고 있어 기관별 수혜자들에 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정한 성과 목표는 수혜자 수나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이지만 평가 방식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 수는 기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여하는 경우, 타 지역 주민, 문화 소외 계층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있어 수혜자 수의 증가가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확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민 중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는 소외 계층 의무 초청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예회관에서는 의무 초청 비율을 채우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심으로 공고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소외 계층에 대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단체 중심의 홍보 뿐 만 아니라 개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전라북도에서 2016년에 진행된 프로그램은 총 48개로 전년도 진행된 사업보다 11개가 증가되었다. 사업 예산 증가 및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 부분 신설(전라북도 6개 시·군 지역 수혜)로 프로그램 진행 빈도가 증가하였고, 수혜자 수 역시 전년보다 4,121명이 증가하였다. 수혜자 수는 35,951명이며 그 중 소외 계층은 11,299명으로 파악된다. 2015년 27,118명이었던 것에 비해 수혜자 수가 소폭 상승했다. 수혜자가 늘어난 이유는 예산이 확대되면서 전라북도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라북도(35,951명)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충청북도와 비교하면, 충청북도느는 전체 수혜자수(34,896명)가 전라북도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계층이 차지하는 수는 전라북도에 비해 높다(충청북도 13,822명, 전라북도 11,299명). 따라서 전라북도는 전체 수혜자 수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소외 계층의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예기관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전년도 전라북도의 만족도 최고 점수는 88.1점(군산예술의전당)이지만, 올해 최고 점수는 83.6점(고창문화의전당)이다.

〈표 4-10〉 2016 전라북도 프로그램 참여 현황

소관	문예회관명	공연명	인원 (명)
고창군	고창문화의전당	연극 '택시 드라이버'	1,045
		뮤지컬 '넌센스'	625
		발레동화 '백설공주'	618
		해설이 있는 발레 '호두까끼 인형'	625
군산시	군산예술의전당	뮤지컬 '빨래'	2,206
		양방언 'EVolution 2016'	835
		'얌모얌모 콘서트'	400
		'굿모닝 광대굿'	841
		'배비장전'	1,200
김제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뮤지컬 '마당을 나온 암탉'	448
		재즈 파크빅 밴드 및 유열과 정수라의 힐링 콘서트	466
		2016년 아리랑파티 GO! GO! GO!	355
		전제덕 하모니카 콘서트 'Dancing Bird'	274
		퓨전 콘서트 '공감21'	247
		THE - CONCERT	311
		샌드애니메이션 오페라 '마술피리'	230
		가족 하모니 콘서트 '아카펠라 그룹 보이쳐'	211
		우리가 그곳에 간 이유	1,000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우리땅 우리소리	550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주현미의 K-Jazz 콘서트 '러브레터'	499
		조관우&조통달과 함께 하는 '그때 그리고 지금'	499
		동물원에 여행 가자	499

소관	문예회관명	공연명	인원 (명)
		박웅의 수상한 수업	200
		어린 왕자	470
		2016 보는 클래식 II	1,834
		문화공감 아름다운 변산 풍경전	4,064
순창군	향토회관	창작 오페라 학동 엄마	350
완주군	완주문예회관	박애리, 팝핀현준과 함께 하는 국악콘서트 '상상 그 이상'	500
		퍼포디언 옹알스 쇼	520
		바람이 불어오는 곳	510
		비보이와 퓨전국악이 찾아가는 스쿨존 jump-up 콘서트	490
		국악 창작극 '비가비 명창 권삼득'	1,000
익산시	익산예술의전당	뮤지컬 스타 콘서트	1080
	익산솜리문화회관	연극 리얼 코메디 '수상한 집주인'	196
	익산솜리문화회관	아주 뻔(FUN)한 콘서트	207
	익산예술의전당	해설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1,094
장수군	장수한누리전당	주현미로 만나는 K-Jazz 콘서트 '러브레터'	998
		뮤지컬 '넌센스'	1,200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방인의 노래	763
		연극 '꽃의 비밀'	514
		손숙의 '그 여자'	206
		헨델의 메시아	1,057
		서른들의 다른 이야기	1,000
		프로젝트 '스몰 몬스터'	864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태혜신 카르마프리 무용단 "샤인 아웃, 휘"	583
		박애리, 팝핀현준과 함께하는 국악콘서트 '상상 그이상'	667
		서울 타악기 앙상블과 함께 하는 '놀자'	600
		해설이 있는 발레 '돈키호테'	1,000
		48개 사업	35,951

익산시와 완주군 인터뷰 결과 소외 계층의 의무 초청 비율을 모두 달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프로그램들은 작품성과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작품으로 문화 향유의 질적 부분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는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6개 시 군 지역이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공연을 진행하였다. 서울 위주로 진행되었던 국립 예술단체들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을 지역에서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립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지만 공연이 연 1회로 한정되어 진행된다. 더구나 시·군에서 중복된 공연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원 공연이 자주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간 교차 향유를 위해 중복된 공연 선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핵심 사업 중 문예기관 지원 사업은 기관의 기획 및 창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역 문예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시설 기반으로 문예회관이 적극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문예회관 기획 및 공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예회관 공연 기획 지원 사업에 김제, 부안, 완주, 전주가 각각 참여하여 4,690명이 수혜를 받았고 전시 기획 부문에서는 부안, 전주가 참여하여 5,064명이 문예회관을 방문하여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특별 기획 프로그램은 익산이 안동과 협업하여 오페라와 뮤지컬이 만남 "상상 그 이상"을 기획하였으며 공연활성화 프로그램은 순창에서 지원을 받아 총 350명의 관람객을 동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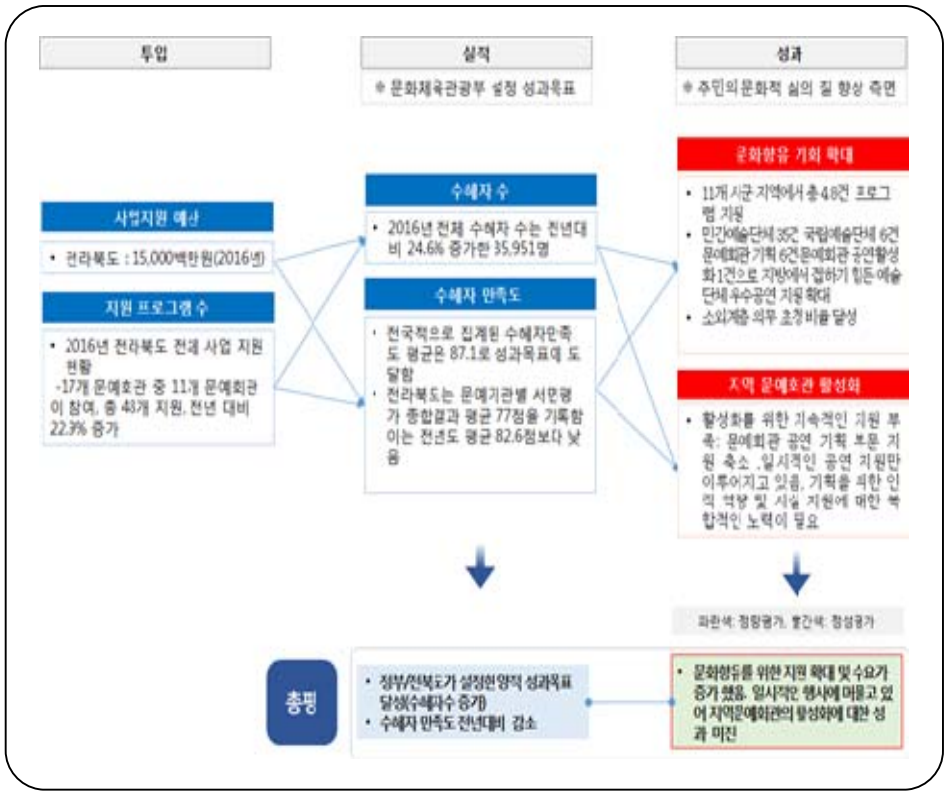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해보다 도내 문예기관 자체 공연기획 부문 지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이 민간 및 국립 예술단체의 공연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되었다. 지역민의 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 향유확대를 위해 지역에서 쉽게 관람할 수 없는 전문 공연 단체의 공연 유치도 필요하지만 문예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단발성이 높은 민간 및 국립 공연 중심의 공연 유치는 문화 향유 시설로서 문예기관에 대한 입지를 공고히 하며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 역량강화 및 시설지원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가 수립한 이 과제의 정량적 목표 중 수혜자 수는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는 전체 예산이 확대되고 지원 프로그램 수가 증가하여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업을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문예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 유통과 더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발굴이 주된 목표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지원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적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문예회관 활성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3〉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3. 시사점

3.1. 농촌보다 도시에게 참여할 기회가 많은 구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문화 발전 또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특화 사업은 아니다. 이것은 복권 기금으로 진행하는 ‘소외 계층 문화 순회’ 사업과 비교해보면 잘 드러난다.

‘소외 계층 문화 순회’ 사업은 6개 유형별 순회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농산어촌 순회 사업이 포함돼 있다. 2016년은 300회 순회 공연, 약 13억 원 예산 투입, 약 38,000명이 참여하였다. '소외 계층 문화순회' 사업이 협의의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 복지 사업이라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광의의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에서 복권 기금(지방비)을 지원받는 곳은 서울 이외 지역의 문예회관이기 때문이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광역시의 문예회관이든, 인구 2만 여 명의 군 단위 문예회관이든 관계 없이 지원을 받는다. [표 3-8]에서 살펴보았듯이 광역시 문예회관과 재정자립도 20% 미만 지역 문예회관의 복권 기금 지원 규모는 다르지만[5] 농산어촌에 특화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을 제외한 215개 문예회관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수행한 문예회관은 173개인데 이것을 도시과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한 자료는 없다. 이것을 전라북도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내에서 민간단체 우수 공연(중대규모)을 수행한 문예회관은 10개이며 이 가운데 군 단위 시설은 4개이다. 민간단체 우수 공연(소규모)을 수행한 문예회관은 8개이며 군 단위 시설은 3개다.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을 수행한 문예회관은 6개이며 군 단위 시설은 2개다. 문예회관 공연 기획프로그램은 4개이며 군 단위는 1개다.

경상북도에 한정해서 살펴보아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민간단체 우수 공연(중대규모) 16개 중 군 지역은 8개, 민간단체 우수 공연(소규모) 14개 중 군 지역은 6개,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 8개 중 3개다. 전라북도가 6개 시지역, 8개 군 지역으로 구성되고, 경상북도가 10개 시 지역, 13개 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행정구역 상 군 지역보다 시 지역 주민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훨씬 높다.

---

5 복권 기금 지원 비중은 지역별로 다르다. 민간단체 우수 공연의 경우 광역시가 40%라면, 재정자립도 20%미만의 지역은 60%다.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은 광역시 70%라면 재정자립도 20%미만 지역은 90%이다.

3.2. 농어촌 삶의 질 측면이 아닌, 국민 문화 격차 해소 사업

‘방방곡곡 문화나눔’ 사업은 몇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서울 중심의 문화예술 향유를 넘어서기 위해서 도시 지역이든 농어촌 지역이든 문화예술을 활발히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취약 계층 관람 비율(30%)을 정하고 있지만 서울과 지방의 문화 향유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문화예술 향유 접근성 확보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이 아니라 계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군 지역보다 시 지역에서 활발한 것은 인구 비례에 따른 측면이 있다. 도·농 간 문화 향유 기회의 차이보다 취약 계층(30% 관람비율)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세 번째, 복권 기금 비중의 차이에서 드러나듯 지역의 경제 구조를 약간 반영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뿐 아니라 일반적 문화예술 향유 지원 사업에서 이 같은 세 가지 입장은 각기 타당성이 있다.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라 이것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국적으로 연간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이 79.3%인데 서울은 83.7%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물론 서울보다 관람률이 높은 지역(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이 있지만 클래식 음악, 연극, 뮤지컬 같은 세부 장르에서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 격차가 있다. 따라서 서울 이외 지역에서 문예회관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불가하지는 않다.

둘째, 문화예술 관람률은 소득별로 차이가 많다. 전체 평균 79.3%인데, 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는 50%에 미치지 못하고, 400만 원 이상 가구는 87%를 상회한다. 지역별 차이보다 소득별 차이에 역점을 두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다는 논리다.

셋째, 거주 지역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대도시 82.3%, 중소도시 82.2%, 읍·면지역 66.1%로 차이가 많다. 문화예술 관람은 소득과 관련될 뿐 아니

라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관련 정책은 농산어촌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세 가지 논리 가운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접근 방식은 첫 번째 입장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전 국민을 놓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보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으로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촌 특성에 맞춘 개선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3.3. 주민의 문화적 삶이 아닌, 외지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전라북도 8개 군 지역의 전체 48개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거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31개 사업이다. 이 중에서 도서관의 '대출 두배로 데이'는 8개이다.

지역 주민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은 17개이다. 박물관·미술관의 무료관람, 자연휴양림·야영장의 할인 등은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니어도 지역 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기보다 대부분 외부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문화가 있는 날의 상당수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위한 기회 제공보다 외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기능이 더 크다.

3.3.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사업, 농어촌 중심으로 진행

2014년 사업 통합 이전 '방방곡곡 문화공감'(2008-2013), 곧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 사업'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사업이었다. 복

권 기금 문화나눔사업 가운데 가장 양질의 프로그램이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 사업'이다. 물론 민간단체 우수 공연도 수준이 높지만 국립 단체 프로그램에 비하여 작품별로 편차가 있다.

'국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의 배정의 심의 기준은 타당성(30%), 현실성(30%), 지역성(20%), 전년도 평가(20%)이다. 이 가운데 현실성은 지역의 재정자립도, 객석 수, 무대 규모 등을 뜻하며, 지역성은 지역 문화 기여도, 장르 안배 및 지역 현실에 맞는 작품 신청 등을 뜻한다. 농어촌 지역은 현실성에서 도시 지역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일정한 쿼터(최소 비중제)를 두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일수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관람할 기회가 없는데,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도 현실성 측면에서 지원받기 어렵다. 국립단체의 우수 공연을 유치하는 데 다소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주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게 문화 분권 및 문화 자치를 고려하면 불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3.4. 지방비 매칭 없는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프로그램의 확대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프로그램'은 민간 단체 우수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비활성화 문예회관에 공연 액 전체를 복권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6년 기준으로 복권 기금(지방비 매칭 이전)의 3%(4.5억 원), 복권 기금과 지방비 합계액의 1.9%(4.5억 원)에 불과하다. 농산어촌의 재정 규모를 고려한다면 지방비 매칭이 필요 없는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3.5. 문화복지사업과 연관성 확보

다른 사업, 특히 지역 문화 활성화, 문화 복지 사업과 연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외 계층 문화 순회사업'의 농산어촌 순회,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진흥사업,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진행하는 농어촌 활성화 사업과 연관성을 맺는 게 필요해 보인다.

3.6. 기존 사업에 대한 분석의 정교화

기존 사업에 대한 분석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문화공감 방방곡곡' 사업 관련 연구는 지역 단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총괄적으로 분석한 정도에 머물고 있다. 지역별 자료는 광역 지자체별 수행 사업 수(예산) 정도가 분석된 정도다. 광역 지자체별 분석도 유의미하지만, 이보다 지역별 특성(예를 들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시 지역 대 군 지역, 도시 지역 대 농어촌 지역)에 따른 분류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행정 통계 산출뿐 아니라 만족도 조사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제5장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현대미술관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은 전국 문화 소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활동으로 생활 속 미술 문화를 확산한다.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 기간: 2016년 4월 ~ 12월
- 총사업비: 7100만 원(2015년 까지 기투자액: 3억100만 원)
- 사업 규모
  - 전국 문화예술 소외 지역 등, 7,000여 명(자료 배포 포함)
- 지원 조건: 해당 없음
- 사업 시행 주체: 국립현대미술관
- 지원 대상(수혜자): 전국 문화예술 소외 지역 어린이 등
- 사업 추진 체계: 직접(간접) 수행
- 법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전국 문화 소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실행
- 예술가와 참여자가 함께 하는 워크숍으로 미술 문화 저변 확산
- 교육 박람회 등 행사에 참가하여 미술관 교육 확산

- 투융자 계획: 일반회계 7100만 원
- 참여 인원: 2016년 7,250명
- 2015년 목표 7,250명, 실적 11,094명
- 측정산식(측정방법)
- 참여 인원(자료 배포 포함)
- 목표치 산출 근거
- 참여 인원 합산(정량 지표)

상대적 문화 소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실행하여 미술 문화 향유 기회를 확산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미술관의 공적 역할을 확산한다. 또한 예술인과 함께하는 창의 활동으로 참여자의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예술가, 민간, 학교, 교육청, 미술관의 협업으로 의미 있는 미술관 교육 활동을 실천한다.

민속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전시 버스 관람 및 교육 사업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민속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 기간: 계속 사업
- 총사업비: 연 9000만 원(2015년 기투자액: 9000만 원)
- 사업 규모
- 60회 지원(2016): 60곳, 9000만 원(곳당 150만 원)
- 지원 조건: 직접 수행(전액 국고)
- 사업 시행 주체: 직접 수행
- 지원 대상(수혜자):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
- 사업 추진 체계: 운영계획안 보고(2016년 1월) → 상반기 운영 기관 신청 및 선정(2016월 2월) →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2016년 2월~7월) → 하반기 운영 기관 신청 접수 및 선정(2016년 6월) →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2016년 8월~12월)

- 법적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제10조
- 추진 방향: 문화 혜택이 취약한 지역 어린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 감수성 배양
- 내용: ‘우리 탈, 우리 인형극’ 전시 관람 및 관련 교육
- 대상: 문화 소외 지역 초등학교 1~6학년
- 운영 횟수: 60회(회당 80명, 4,800명)
- 투융자 계획: 일반회계 9000만 원
-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참여자 수: 2016년 4,800명
- 2015년 목표 3,800명, 실적 9,111명
- 측정산식(측정 방법)
-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참여자수 합계
- 목표치 산출 근거
- 1회당 계획 인원 × 운영 계획 횟수

중앙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박물관 교육 문화 나눔을 확대한다.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 기간: 2016년 5월 ~ 12월
- 총사업비: 6300만 원
- 사업 규모
- 연 20회, 20개 기관(단체) 방문
- 지원 조건: 국고 100%
- 사업 시행 주체: 국립중앙박물관
- 지원 대상(수혜자):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 및 복지시설(다문화)
- 사업 추진 체계: 직접 수행
- 법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조(목적), 제4조(사업), 제10조(설립과 운영)
- 신규 주제 및 내용으로 개편 필요

- 정보 통신 기술(ICT)이 발전하면서 이용과 적용 필요성 대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대비
-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TF 회의 구성 운영
- 문화 소외 지역 및 계층 대상 박물관 교육 문화나눔 확대 추진
- 새로운 주제 및 전시품 내용 선정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 진로 체험, 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실시
- 투융자 계획: 일반회계 6300만 원
- 참여 인원: 2016년 2,000명
- 2015년 목표 2,300명, 실적 2,986명
- 운영 횟수: 2016년 20회
- 2015년 목표 22회, 실적 20회
- 측정산식(측정 방법)
- 프로그램 실제 참여자 산정
- 목표치 산출 근거
- 사업 계획 시 방문 초등학교 재학생 및 재직 교직원 수로 산정
- 방문 기관(단체) 1일 운영 1회로 산정

박물관 등 문화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 지역 학생 및 지역 주민에게 우리 문화재 관람 및 박물관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진로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으로 진행하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추진한다. 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도서와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사업 기간: 2016년 3월 ~ 11월
- 총사업비: 3억6000만 원(15년까지 기투자액: 40억 1000만 원)
- 사업 규모
- 100개 도서관(1관당 22회) 총 2,200회 운영
- 지원 조건: 직접 수행

- 사업 시행 주체: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지원 대상(수혜자): 아동 양육 시설, 지역 아동 센터, 드림스타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등의 정보 취약 계층 어린이 1,500명
- 사업 추진 체계: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주관), 공공 도서관(운영), 지역 아동 센터(협력)
- 법적근거: “도서관법” 제19조(업무)제1항 제8호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2항 제2호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을 하여야 함, “도서관법 시행령” 제12조(독서진흥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제2호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공모 방식에서 시·도 및 교육청 추천으로 선정)
- 운영 도서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의 품질 향상 및 효과 극대화
- 투융자 계획: 일반회계 3억6000만 원
- 운영 도서관 수: 100개

- 2015년 목표 100개, 실적 100개

- 측정산식(측정 방법)

- 자체 조사

- 목표치 산출 근거

- 운영 도서관 수

정보 취약 계층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독서 습관을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기여하고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향상하고 도서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확산한다.

전국적으로 4개 사업 전체 예산은 5억8400만 원으로 3개 사업은 1억 원 미만의 소액이고, 도서관 사업만 3억6000만 원으로 운영된다. 전국적으로 4개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194개 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6개 기관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고, 대부분의 광역 시·도는 참여도가 높지 않다.

〈표 5-1〉 2016년 예산현황(전체)

사업명	예산 (백만 원)	사업 기간	성과 목표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현대미술관)	71	2016년 4월~12월	7,000여 명(자료배포 포함)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민속박물관)	90	2016년 2월~12월	4,800명 (60회)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중앙박물관)	63	2016년 5월~12월	2,000명 (20회)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어린이청소년도서관)	360	2016년 3월~11월	100개 도서관(1관 당 22회)

〈표 5-2〉 사업 수혜 대상 선정 방법 및 운영 방식

사업 명	수혜 대상	선정 방법	추진 방식	사업 규모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현대미술관)	초등학생	공모	- 교육강사/수혜기관 선정 - 매칭형태/직간접 수행	예술가 2명 수혜기관 4개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민속박물관)	초등학생	공모	- 상하반기 수혜기관 선정 - 직접 수행	수혜기관 60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중앙박물관)	초등학교 복지시설	공모	- 수혜기관 선정 - 직접 수행	수혜기관 20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 정보 취약 계층어린이	추천	- 시도/교육청 추천 선정 - 공공도서관(운영), 지역아동센터(협력)	도서관 100개

〈표 5-3〉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사업(현대미술관): 4개 기관

사업 기간	학교명	지역	참여 인원
2016년 7월~11월 참여형 교육 각 4차시 (409시간)	도평초등학교	경기도 포천	학교 방문 예술가 워크숍 888명 교육 박람회 참가 4,500명 워크숍 결과 자료 전시 2,000명
	서탄초등학교	경기도 평택	
	조도초등학교	전남 진도	
	토성초등학교	강원도 철원	

〈지역별 운영 현황(2011년~2015년) - 수혜 기관 수〉

지역	서울	경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제주	세종	계
2011	-						1					1	1		1			4
2012	-		1	1	1	1	1	1			1	1	1	1	1	1		12
2013	-	6					1		1		1	1	1	1	1	1	1	15
2014	-	6					1		1			2	1		3		1	15
2015	-	4		2					3	1	1	2	1	1	2	1		18
합계	0	16	1	3	1	1	4	1	5	1	3	7	5	3	8	3	2	61

〈표 5-4〉 2016년 참여 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현대미술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민속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중앙박물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합계
강원	1	8	-	7	16
경기	2	17	33	14	66
경남	-	2	2	6	10
경북	-	7	-	5	12
광주	-	-	-	4	4
대구	-	-	-	7	7
대전	-	-	-	2	2
부산	-	-	-	5	5
세종	-	3	-	-	3
울산	-	1	-	3	4
인천	-	-	1	7	8
전남	1	1	-	8	10
전북	-	4	-	8	12
충남	-	6	-	8	14
충북	-	5	-	3	8
제주	-	-	-	4	4
서울	-	-	-	9	9
합계	4	54	36	100	194

주: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은 2017년 사업을 적용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민속박물관)은 2016년 54개 기관, 2017년 57개 기관을 지원하였고,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지역별 10개 기관을 지원하였다.

2. 지역 평가 결과[6]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은 문화 소외 계층과 정보 취약 계층에게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참여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업 시행 주체인 4개 기관이 지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접근하기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아동·청소년에게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평가는 사업 목표인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맞춰 참여 인원 수와 운영 기관 수를 정량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성과 지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사업의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투입 지표는 2016년 기준으로 기관별로 지원된 예산으로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범위를 측정한다. 또한 지역별 참여 기관 수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이 지역별로 고르게 지원되었는지 살펴본다.

실적 지표는 첫째, 성과 목표로 삼은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사업에 참여한 인원 수를 측정한다. 각 기관별로 사업 특성에 맞게 설정한 참여 인원은 찾아가는 지역과 횟수가 반영되어 있어 의미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참여 인원 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찾아가는 횟수와도 연계되어 있다. 둘째,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수혜 대상 기관 전체와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기관의 비율을 측정한다. 셋째, 지원 예산 대비 참여 기관 수 및 참여 인원 비율을 측정한다.

성과 지표는 4개 기관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중 1개 지역을 대표 사례로 조사하여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첫째,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의 당초 목적과 현장에서 이해하는 목적을 비교하여 문화 향유 증진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업의 기여도, 적극성, 만족도를 평가한다.

---

6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사업'에서 추진한 프로그램 중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1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표 5-5〉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방법

체계	세부 지표	측정 방법	비고
투입	사업 예산 지원	• 기관별 지원 예산 (2016년 기준)	정량
	참여 기관 현황	• 지역별 참여 기관 수 (2016년 기준)	정량
실적	참여 인원 수	• 찾아가는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 수 (2016년 기준)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정량
	대상 기관 참여율	• 수혜 대상 기관 대비 참여 기관 비율(2016년 기준)	정량
	예산 대비 참여도	• 지원 예산 대비 참여 기관 수 및 참여 인원(2016년 기준)	
성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찾아가는 프로그램 목적 및 필요성	정성
	교육 만족도 증진	• 프로그램 별 교육 형태, 적극성, 만족도 등 분석(2017년 기준)	정성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및 추진 내용

전라북도는 2016년 2개 사업이 지원되었다.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민속박물관) 사업은 4개 기관에 680만 원(1기관 당 170만 원 정도) 가량 예산이 투입되었고,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8개 기관에 2,880만 원 정도에 운영되었다. 도서관 사업은 지원과 더불어 도서 지원까지 합하면 1기관에 500만 원 가량 지원된 셈이다. 따라서 총 지원된 예산은 3,560만 원이 지원되었다.

전라북도에서 2016년에 추진한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의 참여 기관은 총 12곳으로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이 4곳,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8곳이다. 도서관 사업은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고루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사업과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은 실시되지 않았다.

〈표 5-6〉 2016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업 기간	추천기관	운영기관	협력기관
2016년 4월 ~ 11월 (기관당 22회)	도청	군산설립도서관	한우리지역아동센터
		순창군립도서관	구림한사랑지역아동센터
		익산시립마동도서관	마동지역아동센터
		임실군립도서관	기장지역아동센터
	교육청	군산교육문화회관대야분관	개정지역아동센터
		남원교육문화회관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완주공공도서관	햇빛지역아동센터
		정읍학생복지회관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표 5-7〉 2016년 전라북도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민속박물관)

사업일시	지역	기관	참여 인원 수
2016. 10. 13.	전북 남원시	왕치초등학교	79
2016. 10. 14.	전북 남원시	주생초등학교	57
2016. 10. 20.	전북 부안군	줄포초등학교	85
2016. 12. 7.	전북 김제시	죽산초등학교	61
합계			282

2017년에는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은 1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고,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10개 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 및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사업과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사업은 실시되지 않았다.

〈표 5-8〉 2017년 전라북도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민속박물관)

사업일시	지역	기관	참여 인원
2017. 6. 9.	전북 남원시	오동초등학교	97

〈표 5-9〉 2017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업 기간	추천 기관	운영 기관	협력 기관
2017년 4월~11월 (기관당 22회)	도청	부안군립도서관	창북지역아동센터
		완주군립삼례도서관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익산시립영등도서관	함열제일지역아동센터
		임실군립도서관	기장지역아동센터
		전주시덕진도서관 아중분관	인후지역아동센터
		정읍기적의도서관	다솜학교
	교육청	김제교육문화회관	꿈의지역아동센터
		마한교육문화회관함열분관	익산지역아동센터
		부안교육문화회관	부안지역아동센터
		순창공공도서관	풍산지역아동센터

2.2. 현장 사례 조사 결과

완주 군립 도서관(중앙, 삼례, 고산, 둔산 영어)은 4개 도서관에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각 도서관이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따라서 세부내용은 개별 도서관이 자유롭게 기획하고 운영한다. 완주군에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에 2016년 완주공공도서관, 2017년에는 삼례도서관이 선정되었다.

-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운영 현황
  - 운영 기간: 2017년 3월 ~ 11월(24회)
  - 협력 기관: 늘푸른지역아동센터
  - 참여 대상: 초등학생 13명 (평균 10~11명 참여)
  - 운영 내용: 그림책 스토리텔링, 도서관 견학, 영화 관람, 책놀이 체험을 결합한 책 읽기

〈표 5-10〉 완주 삼례도서관 주요 프로그램

사업명	대상	사업 기간	주요 내용
어린이 독서교실	초등학생 4~5학년	2회(여름, 겨울)	도서관 이용법, 독서 퍼즐, 글쓰기, 나만의 도서 대출 가방 만들기
도서관 주간	완주군민	4.12. ~ 4.18.	책읽기, 도서관 예절, 견학 등
독서의 달	초·중학생	9.1. ~ 9.30.	글짓기 대회, 독서 골든벨
책 읽는 가족	완주군민	2회(5월, 11월)	가족 단위 독서 생활화

방문 시설	완주군립삼례도서관
담당 직원	노영은 사서
주요 내용	도서관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접근이 수월하지 않은 편이다.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해서 제공하는데, 여전히 도서관은 책만 보는 곳으로 생각한다.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진행하니 익숙한 공간에서 편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읽기〉 사업은 늘푸른 지역 아동 센터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20권의 책을 읽는 성과를 냈다. 진행 방법은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다양한 놀이 체험을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찾아가는 교육은 평소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의미가 큰 사업이며, 그만큼 참여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사서 1명이 10여 명의 아이들과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끌고 운영하는데 힘겨운 점은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전문 사서가 교육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연속성이 있어 교육의 질은 높았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대〉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차이점은 단순한 책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이해하고 가깝게 하려고 다양한 놀이 체험을 결합한다는 점이 기대 효과가 높았다.

현장 사례 조사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기관의 직접 운영 방식이 대체로 교육 만족도가 높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은 외부에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지원하는데, 지역의 문화 기관과 시설을 활용하는 운영 기관 지정 방식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운영 기관, 협력 기관, 참여자 등 지속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추후 문화 향유

참여 제고 활동과 연계될 수 있다.

둘째, 운영 인력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도서관을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고, 도서관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지역의 도서관 여건 상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대부분 한 명이 운영하다보니 교육 진행과 아이 관리를 동시에 하기가 어렵다. 다만, 협력 기관의 교사가 있어 일정 부분 관리는 되지만 교육 진행과 관련하여 협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운영비가 추가 지원된다면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여 풍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전라북도의 2016년 참여 인원 수는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282명,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90여 명으로 총 380명 정도 된다. 성과 목표인 전체 참여 인원 14,800명 중 전라북도 참여 인원은 2.6%가 된다. 도서관 사업은 100개 기관 중 전라북도는 8개 기관에 지원되어 8%에 해당한다.

〈표 5-11〉 2016년 목표 대비 전라북도 참여 인원 수 비율

구분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합계
성과 목표	7,250	4,800명	2,000명	100개 (1,000명)	15,050명 (100개)
전라북도	-	282명	-	8개 (90명)	
비율	0	5.9%	0	8%	

대상 기관 참여율은 2016년 전라북도에 지원된 사업을 중심으로 참여 가능한 기관 대비 지원된 기관의 비율을 보고자 한다.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사업은 초등학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3곳이 사업 대상이다. 전라북도 초등학교 수는 424개, 초등학생 수는 97,383명이고, 사업에 해당하는 참여 기관과 학생 수는 353개 학교, 58,966명이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한 4개 학교 282명과 비교하면 참여 학교는 1.1%, 참여 인원은 0.5%에 불과하다.[7]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소속 도서관 중 추천을 받아 공모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전국 공공도서관(사서) 수는 1,010개(5,710명)이고 전라북도는 58개(197명) 이다. 그중 사업에 참여한 도서관은 8개로 전라북도 전체 대비 14%에 해당한다.

전라북도에 지원된 예산과 참여 인원은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사업 680만원에 282명,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2,880만 원 정도에 90명으로서, 총 3,560만원에 372명이다. 전라북도에 투입된 예산 대비 참여자 1인 당 예산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사업은 24,100원,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320,000원이다. 그러나 진행 횟수를 감안하면 도서관 사업은 22회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1회 기준으로 보면 14,500원 정도가 된다.

2016년 전라북도에 지원된 사업은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과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으로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사업과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은 전라북도에서 진행되지 않아 2개 사업만 해당된다. 전라북도가 참여한 2개 사업은 총 5개 기관, 참여 인원 372명, 3,560만 원 정도 투입되었다.

결론적으로 2개 사업 5개 기관에 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해서 농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에게 문화 향유 기회가 양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업을 추진한 해당 지역만 대상으로 놓고 보면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사업의 목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문화 소외 지역과 정보 취약 계층에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7 초등학교 현황은 전라북도교육청(www.jbe.go.kr), 도서관 현황은 통계청(www.kostat.go.kr) 자료에 근거

따라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전문 교육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라북도에 지원된 2개 사업 중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민속박물관) 프로그램은 2016년 '신나게 놀아보자! 인형이랑~ 탈이랑'이라는 주제로 탈 만들기 체험, 탈춤 공연 관람, 전시 버스 관람, 전래놀이 체험, 탈춤 배우기 등으로 구성하여 하루 동안 진행되었다. 평소 접하기 힘든 탈과 탈춤을 주제로 직접 경험하고,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운영 기관과 협력 기관이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는 8개의 운영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었다. 한 기관 당 참여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정되어 있고, 진행 횟수는 같은 기관에 22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성과와 만족도가 높다. 프로그램 내용은 책과 도서관을 매개로 하지만 전달하는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5-1〉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실태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 개정지역아동센터

■ 주제: '위풍당당 도서관 탐험대' 운영
- 군산지역 내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탐험하며 아이들이 책을 매개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미술과 결합하여 체험형태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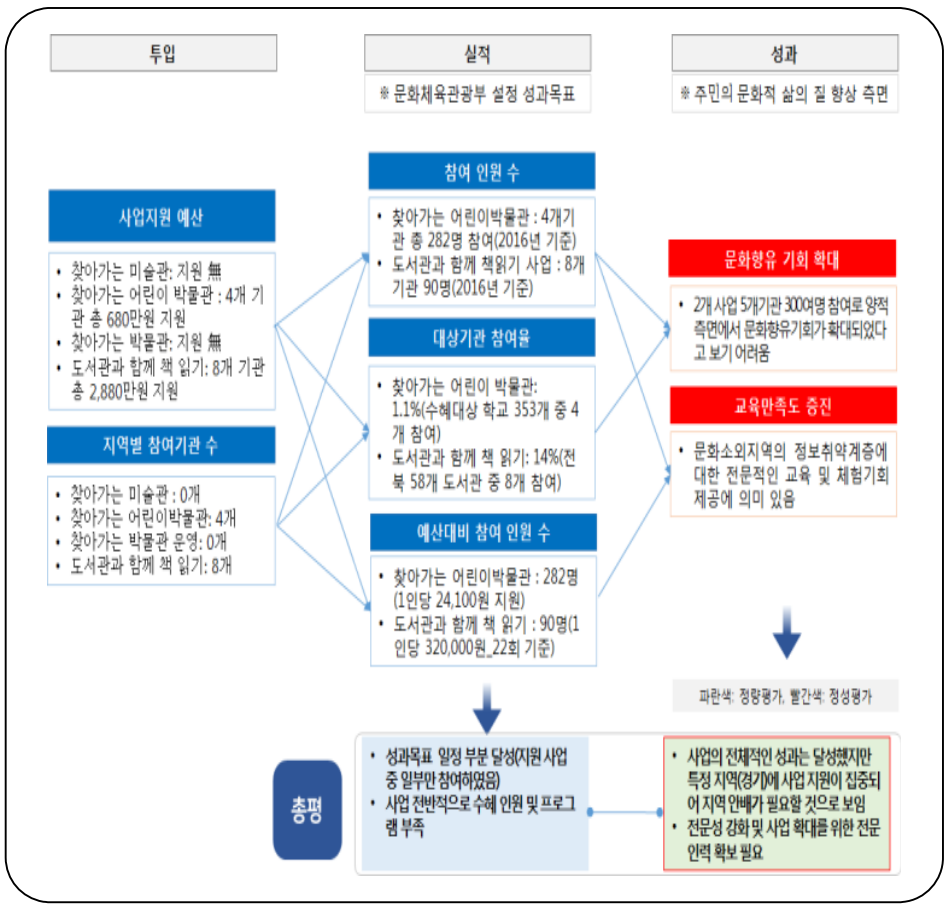
■ 금강습지생태공원/철새조망대탐험과 〈똥섬이 사라진대요〉, 운영기관도서관과 〈무지개물고기〉, 군산 미술관탐험과 〈소피의 달빛 담요〉 등 진행





지원 사업별 정량적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전라북도에서 참여를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체 4개 지원 사업 중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사업과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중 일부만 참여 하였고(2016년 기준) 2017년에도 지원 사업의 참여는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비 사업 전체 수혜자수도 감소하였다.

〈그림 5-2〉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3. 시사점

3.1. 지역별 균형 지원 및 효율적인 성과 목표 설정

참여 인원 수로 산정한 성과 목표는 성과의 외연 확장은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이 농산어촌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별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2개 사업만 지원되고, 참여하는 기관도 적어 실제로 수혜 받는 참여자는 적은 편이다.

성과 목표 설정은 총 참여 인원 수와 지역별 지원 현황을 교차 비교한 비율을 목표로 삼는 것이 성과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사업별로 전체 참여 인원 수만 성과로 본다면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인접한 농산어촌으로만 지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일정 부분 지역 안배는 필요하다.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2016년에 지원되지 않았지만 과거 3회(2012년, 2013년, 2015년) 지원받았다. 운영 기관의 특성 상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 교육으로 인해 1개 기관에 8차시(2학급, 각 4차시)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수혜받는 지역이 적어진다. 전문적 교육이 농산어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와 교육 인력 확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지역별로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으로 지역별로 운영 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의 도서관이 같은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성과가 도출된다. 추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네트워크로 사후 관리와 연계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2. 지역의 문화 기관을 연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진행 필요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업은 추진 체계가 직접 수행하거나 직접 및 간접 수행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은 직접 수행,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은 예술가를 선정하는 간접 방식으로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박람회는 미술관이 직접 수행한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은 지역에 있는 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같은 지역에 사는 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간접 수행 방식을 따르고 있다.

3개의 사업(도서관 사업 제외)은 대부분 직접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다. 박물관은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시 버스를 운영하여 유물을 감상한다는 차원에서 어린이 만족도는 매우 높다.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 체험하는 정도로 체험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교육의 깊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한 국공립 박물관을 연계한 간접 수행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는 국립 전주박물관을 운영 기관으로 지정한다면 교육 성과는 더 클 것으로 본다.

미술관은 지역별로 국공립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 미술관을 연결하고 지역 내 예술가를 양성하는 등 인적 자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술관 교육은 교육을 위해 예술가를 선정하고, 창의적 수업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창작 워크숍'을 진행한 후 참여자를 만난다. 이러한 방식은 참여 기관이 적다하더라도 교육을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역 내 국공립미술관과 연계하여 장점을 살린 사업 추진 체계를 만든다면 찾아가는 교육의 기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3.3. 농어촌의 균형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체계 마련

사업 추진 체계는 직·간접 수행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농산어촌의 찾아가는 교육 사업이 더 큰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관련 분야

전문 기관을 연계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사업과 찾아오는 사업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사업은 지리적 교통 약자에게 전문적 교육을 전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장점이 있지만, 교육 내용이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산어촌의 참여자에게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찾아오는 교육을 지원한다면 교육을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효과도 높다. 다만, 지역의 전문 기관을 연계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4. 찾아가는 사업을 위한 예산 확대, 인력 지원 및 양성

현재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현황은 미비한 수준이다. 전국 단위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적은 예산은 전문 교육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적은 인력이 많은 진행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찾아가는 교육을 위한 인력 양성도 요구된다. 미술관 사업에서 교육을 위한 예술가를 선정하고 창작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박물관 및 도서관도 기관 특성에 맞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지원이 별도로 필요하다. 찾아가는 교육은 여러 지역의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문 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도서관 사업은 작은 도서관일수록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인력도 사서 1명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 관리를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떠나 안전을 위해서도 인력 지원에 대한 안배가 고려되어야 한다.

3.5. 농산어촌의 구분 및 범위 필요

행정구역 상 면 단위가 포함된 지역을 농산어촌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부분이 농산어촌에 포함된다. 이 사업에서 설정한 대상도 중심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포함된다. 대상 설정이 정확해야 대상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산어촌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구분하여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에 대한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OECD는 농산어촌 지역을 농산어촌 우세 지역(predominantly rural regions), 상당한 농산어촌 지역(significantly rural regions) 및 도시화된 우세 지역(predominantly urbanized regions) 등으로 유형화하고 이들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농산어촌 지역을 3~5개로 구분한 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8]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농산어촌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8 박삼철, 2011, “농산어촌 유형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농산어촌”, 교육행정학연구 29(4): 254-255 인용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6장

1.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어르신의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기간: 2005년 ~ 단년도 계속
- 총사업비: 해당 사항 없음
- 사업 규모: 300개 내외 프로그램 운영
- 지원 조건: 민간 경상 보조, 국고 100%
- 사업 시행 주체: 한국문화원협회 및 전국 문화시설·단체
- 지원 대상(수혜자): 50세 이상 국민
- 사업 추진 체계: 사업계획 수립(1월, 문체부) → 공모 및 심사(2~3월,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 운영(4~11월, 문화시설·단체) → 사업 평가(12월, 한국문화원연합회)
- 법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 39조

2017년에는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문화 수준 향상을 고려, 실버세대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투융자

계획이 42억 9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정한 성과 목표와 측정산식은 다음과 같다.

-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2017년 88.4점
  - 2016년 목표 88.2점, 실적 88.3점
- 측정산식(측정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 {∑(7점척도-1)×16.7}/전체 응답자 수
- 목표치 산출근거
  - 만족도 점수의 임계적 특성을 고려, 전년 대비 소폭 상향 조정

2. 지역 평가 결과[9]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투입 지표는 해당 사업의 지속 연수, 추진 예산, 참여 인원, 사업 기간, 운영 인력 등 정량 지표와 함께, 계속 사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개선 노력을 정성 지표로 평가하였다. 실적 지표는 해당 사업의 수료 또는 문화·일자리 활동 참여 인원, 봉사·동아리 활동 횟수, 일자리 매칭 기관 수, 문화 프로그램 외 자발적인 모임 결성 및 운영 여부 등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 지표는 어르신의 문화 활동 주체자로서의 활동 정도 및 만족도, 해당 사업 운영 과제와 지속 여부, 사업 종료 후 문화 활동 지속 가능성으로 측정하였다.

---

9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한 전라북도 내 3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역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평가했다.

〈표 6-1〉 투입-실적-성과 지표와 측정방법 정량

체계	세부 지표	분석 내용	비고
투입	해당 사업 지속 연수	• 해당 사업 운영 기간	정량
	해당 사업 추진 예산	• 해당 사업 예산	정량
	참여 인원	• 참여 인원	정량
	사업 기간 및 운영 인원	• 해당 사업 기간 및 운영을 위한 인력 수	정량
	운영개선사항	• 사업 활성화 위한 운영 개선 노력	정성
실적	프로그램 수료·활동인원	• 해당 프로그램 수료 인원 및 문화/일자리활동 참여 인원	정량
	문화 활동 횟수	• 봉사활동·동아리활동 횟수	정량
	일자리 매칭 기관 수	• 강사 파견 요청 기관 수	정량
	자발적 모임 결성 여부	• 문화 활동을 위한 주도적 문화 공동체 운영 여부	정량
성과	주도성 및 주체성	• 해당 사업 참여자의 참여 정도 및 만족도	정성
	문화 향유 증진	• 해당 사업 운영 과제 및 지속 여부, 사업 종료 후 문화 활동 지원 여부 및 계획	정성

2.1. 평가 지역 사업 현황

2016년 전라북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총 37개로 문화시설·단체 26개에서 수행되었다. 일반사업 36개 중 어르신 문화활동가 사업은 13개,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사업 11개, 어르신 문화동아리 사업 6개, 어르신 문화콘텐츠 사업 3개, 어르신 문화일자리 사업 3개가 운영되었다. 특화 사업으로 어르신-청년 협력 프로젝트는 1개가 추진되었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시설·단체 8개가 총 16개를 운영했다. 어르신 문화활동가 사업 5개,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사업 5개, 어르신 문화동아리 사업 2개, 어르신 문화콘텐츠 사업 2개, 어르신 문화일자리 사업 2개를 수행했다. 지역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완주군 7개, 임실군 2개, 무주군 2개, 순창군 2개, 고창군 2개, 부안군 1개였다. 되지 않았다.

〈표 6-2〉 2016년 전북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단위: 개

구분	운영기관	운영사업	사업/프로그램 영역			
			일반사업		특화사업	
			기관	사업	기관	사업
전북	26	37	25	36	1	1
도시	18	21	17	20	1	1
농어촌	8	16	8	16	0	0

2017년 전라북도 내 23개 문화시설·단체가 총 25개 사업을 수행하였다. 사업/프로그램 영역별로 살펴보면, 동아리, 일자리, 봉사단 등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노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 지원 사업은 24개로, 22개 기관과 시설에서 운영하였다. 활동 지원 사업은 강습형인 문화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일자리 활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활동 특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 문제 등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화 사업 중 1개의 청년 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농어촌 어르신 대상 사업은 전체 사업 중 10개였으며, 8개 지방문화원·문화시설에서 운영하였다. 10개의 농어촌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일자리 지원 사업과 활동 지원 사업이 각각 2개, 8개였다. 8개 군 중 6개 군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7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예산은 전년 대비 10%p 감소했다. 전라북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전년 대비 32.4%p 감소하여 25개가 운영되었다. 농어촌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10개로, 전년 대비 37.5%p 감소했다.

〈표 6-3〉 2017년 전북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단위: 개

구분	운영기관	운영사업	사업/프로그램 영역			
			일반사업		특화사업	
			기관	사업	기관	사업
전북	23	25	22	24	1	1
도시	15	15	14	14	1	1
농어촌	8	10	8	10	0	0

지역별 사업은 완주군이 5개로 가장 많고,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각각 1개였다. 일자리 사업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민요 강사 파견·인턴십 사업(완주문화원), 강습형 문화 활동 후 동화 구연가로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사업(완주문화의 집)이였다. 활동 지원 사업 내용은 크게 악기 연주(4개), 댄스·풍물(1개), 스피치(1개), 합창(1개)으로 구분된다. 진안문화원에서 진행되었던 '감성대화 행복한 소통' 사업을 제외한 6개의 활동 지원 사업은 강습형 문화 활동과 봉사단 활동, 동아리 활동이 함께 운영되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지역 행사, 요양원, 어린이집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강습형 문화 활동은 4, 5월부터 10, 11월까지 30여 회 진행되었으며, 15여 명에서 40여 명까지 참여하였다. 조사 사업 예산은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이였으며, 평균 1020만 원이였다.

2017년 10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중 신규 사업은 5개로 장수문화원 '논개골 고개놀이', 진안문화원 '감성대화 행복한 소통', 구이생활문화센터 '마음을 울리는 실버벨', 완주문화의 집 '완주 힐링 패밀리', 완주문화원 '민요 할머니 강사' 가 해당된다. 계속 사업은 무주문화원 '할머니 하모니(2014~2017)', 순창문화원 '옥천고을 대취타(2014~2017)', 완주문화원 '화산별곡 음악봉사단(2015.9~2017)', 임실군 '춤추GO! 나누GO!(2015~2017)', 완주문화의집 '할머니무릎베개'이다.

〈표 6-4〉 2017년 농어촌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현황

단위: 천 원

지역	단체	사업영역	사업명	예산
완주군	완주문화원	활동지원	화산별곡 음악봉사단	11,000
		일자리(신규)	민요할머니강사	16,000
	구이생활문화센터	활동지원	마음을 울리는 '실버벨'	12,000
	완주문화의 집	활동지원	완주 힐링패밀리	3,000
		일자리	할머니무릎베개	12,000
무주군	무주문화원	활동지원	할모니 하모니	11,000
순창군	순창문화원	활동지원	옥천고을 대취타	11,000
임실군	임실문화원	활동지원	춤추GO! 나누GO!	9,000
장수군	장수문화원	활동지원(신규)	논개골 고개놀이	7,000
진안군	진안문화원	활동지원(신규)	감성대화 행복한 소통	10,000

2.2. 평가 지역 사업 추진 내용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북 농어촌 지역의 문화 시설은 8개였으며,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2016년 전년 대비 37.5% 감소한 10개였다. 2017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선발 기준이 변경되면서 신규 사업에 비해 계속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완주군은 5개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5개 군(무주군, 순창군, 임심군, 장수군, 진안군)은 각각 1개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중 3개 군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10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 중 2개 프로그램은 일자리 지원, 7개 프로그램은 문예 활동 지원, 나머지 1개 프로그램은 대화법 교육 지원이었다. 2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완주군 2개의 시설에서 운영하였다. 사업 예산 지원은 사업 규모와 콘텐츠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사업비는 강사비, 활동 관련 물품 등 구입·유지 등을 포함하며, 이 중 강사비의 비율이 가장 컸다. 순창문화원 '옥천고을 대취타' 사업비는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지원되었다.

문예활동 지원 사업의 커리큘럼은 주로 4월~11월까지 강습형 교육 과정과 수료자의 결과 발표회로 구성된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일정 기간 교육 후, 일자리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료생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속 사업은 참여율이 낮았던 수혜 대상과 문화 소외 지역을 발굴하여 문화 소외 계층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하였다.

진안문화원 '감성대화 행복한 소통' 은 2017년 어르신 문화사업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관내 50대 이상 농어업인 중에 모임이나 단체의 임원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악기, 댄스 등 취미 과정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이들을 위한 감성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으로 효과적인 소통과 감정 기술을 이해하고 훈련하여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감성 치유, 자존감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프로그램 지원자의 연령은 50대, 6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어,

50~60세는 정원의 20%로 한정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의 참여를 지원, 유도하고자 하였다. 조사사업의 강습활동은 관내 50세 이상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 9일까지 총 24회 과정으로, 주 1회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을 중심으로 독거 노인들의 말벗이 되거나 신문 또는 책을 읽어주는 봉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소요예산으로 1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으며, 주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였다. 교육 과정 마지막 날, 수료생의 가족, 친지, 지인을 초대하여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회는 개인 생애사와 관련하여 자유 주제로 수료생 16명이 참가했다. 조사 사업 담당자는 프로그램과 발표회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회 차 때 교육생들이 자리에 일어나 자기 이름을 말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하던 교육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감성 스피치를 통하여 대화와 말하기 방법을 훈련받았다. 담당자는 수료생 중 무학인 80세 어르신은 발표회를 위해 몇 차례 담당자와 강사로부터 자신의 이야기 수정을 도움을 받은 후 발표회 당일 다른 교육생과 달리 대본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하여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발표회 동안 수료생 16명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생애사, 예를 들면 아들이 죽을 뻔 했던 사건, 자신의 일생 정리 등과 같은 내용으로 감동적인 사연을 발표하였으며, 담당자는 수료생들이 교육 초기 모습과 달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등 변화한 모습을 보며 프로그램 성과에 만족했다. 지역 신문인 '진안신문'에 해당 프로그램 발표회 기사가 실렸다고 강조하였다(11월 15일자 진안신문, '끝난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의 의미'). 진안문화원의 계속 사업으로 '감성대화 행복한 소통'을 2018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공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옥천고을 대취타'는 순창문화원에서 관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4년째 진행하는 대표적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다. 순창문화원은 2016년 '옥천고을 대취타'와 '나이야 가라~ 댄스스포츠'를 운영하였으나, 2017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이 문화시설·센터 당 사업 하나만 공모하도록

변경되면서, 순창문화원은 2017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옥천고을 대취타'를 제안하여 선정되었다. '옥천고을 대취타'는 무령지곡(武寧之曲)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 46호로 지정된 대취타를 옥천고을의 대표적 문화활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화하였다. 2017년 '옥천고을 대취타'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주민 약 4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6개월 간 주 2회 2시간의 강습형 대취타 교육 및 실습 및 매달 1~2회 지역 체육대회, 지역 축제 등 군 단위 지역 행사에 초대되어 공연을 펼치면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40여 명의 교육생은 대장(지휘자), 징, 나발, 나각, 태평소, 욕고, 자바라, 장구, 꽹과리 등의 교육을 받으며 옥천고을 대취타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조사 프로그램의 소요 예산은 전체 1684만 원으로 국비로 1100만 원, 군비로 584만 원을 지원받았다. 예산 지출 항목은 강사비, 복장 및 악기 구입 및 유지, 공연 활동을 위한 교통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담당자는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전국 시·도 25개 실버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 '2017 실버문화페스티벌'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샤이니스타로 선정된 것을 2017년 옥천고을 대취타 사업의 성과 중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강사가 주도하는 문화 활동이 아닌 어르신이 문화 활동을 주도하도록 하여 어르신의 문화 계승과 보존에 대한 자부심 증진과 높은 만족도를 강조하였다. 해당 사업은 2018년 순창 문화원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담당자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으로 예산 문제를 꼽았다. 교육비를 제외한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악기, 전통 의상을 구입하거나 의류 및 신발 세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옥천고을 대취타는 평균적으로 매달 1~2회의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있어 의복 유지를 위한 세탁비용과 악기, 의복 등을 포함한 행사 물품 구입과 단원의 이동 비용이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옥천고을 대취타가 네 번째 해를 맞이하며, 의복 보수와 구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악기 교체 또는 추가 구입 수요가 발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모색하고 있다.

〈그림 6-1〉 옥천고을 대취타 공연활동



2016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고창문화원 '재담(만담)가 발굴양성'과 완주문화의 집 '찾았다! 거리의 이야기꾼 전기수'가 선정되어 운영되었다. 2017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완주문화의 집 '할머니 무릎베개'와 완주문화원 '민요할머니강사'가 선정되었다. 완주문화의 집 '할머니 무릎베개'는 올해 4년 차로 할머니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 선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이다. 관내 이야기할머니 등에 관심이 있는 50세 이상 할머니를 대상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이야기 할머니 교육 과정이 운영되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어린이집, 병설 유치원 등에 이야기 할머니로 파견되었다. 해당 프로그램 교육생들은 주 1회 2시간의 교육에 참여하고 그 외 주 2회 자발적으로 연습의 시간을 갖았다. 연습시간은 문화 시설 관련자의 도움을 받거나 교육생 간의 상호 수퍼 비전을 통해 선현들의 미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훈련하였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의뢰한 어린이집 등에서 1회 당 2~3만 원을 받고 어린이에게 동화 등을 이야기한다. 2017년 교육 과정의 참여 인원은 10명이었으나 8명이 수료하였다. 2016년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과제를 바탕으로 2017년 할머니 무릎베개 사업 운영에 몇 가지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6년 교육생을 배출한 지역은 이서면에 집중되었다. 또한 연령은 50대에 치중되어 해당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지역과 대상이 발생했다. 문화 소외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사업 수혜자를 참여율이 적었던 지역 주민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2016년 비율이 높았던 이서면의 참여자 수를 제한하고, 봉사단을 고산면, 경천면 등 지역으로 파견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서면 주민의 항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연령 또한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완주문화의집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연계하였으며, 파견 일정을 조율했다. 지역별로 어린이집에서 가능한 수업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 할머니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달랐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종종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면, A지역 어린이집은 주 3회 수업을 진행하고 B지역 어린이집은 주 1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A지역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B지역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이야기 할머니들이 기회 배분이 공평하지 않다고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담당자는 수요자와 이야기 할머니 간 관계 조율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요자인 어린이집에서 특정 이야기 할머니를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참여하려는 어르신을 설득하거나, 수요자와 어르신 간 의견 대립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이야기 할머니는 유아·아동 교육기관의 아이들에게 선현 미담 및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에 대한 슈퍼 비전을 무시하는 등 이야기 전달 방식을 개선하지 않아 교육 기관에서 선호하지 않거나 거부당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담당자는 교육 과정 운영에 비해 유아·아동 교육 기관에 이야기 할머니를 파견·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2018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기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활동 지원 사업의 담당자들은 어르신들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봉사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주체성을 발현하고 자기 긍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졌고, 활동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확보되었음을 중요 성과로 평가하였다. 문화 활동 평가에 대해, 어르신들이 상호작

용과 상호 학습에 참여하여 문화공동체를 형성, 유지하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얻고, 후속 세대와 교류하여 지역사회 소속감을 증진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담당자들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음을 강조하였으나, 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과제도 지적했다. 농어촌 어르신 대상의 문화 프로그램 참여율은 농업 활동의 특성, 물리적 접근성,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화시설·단체는 특히 참여자의 물리적 제약점을 고려하여 저녁 시간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과 동아리, 봉사 활동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받는 예산은 강사비, 물품 구입 또는 유지, 어르신 이동 지원 등에 쓰이고 있어, 예산 부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특히, 옥천고을 대취타 담당자는 악기구입, 의상 구입 및 관리 등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주로 4월~11월까지 운영되어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교육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자는 교육 수료 후 문화 활동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미흡해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원 종료 후,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2.3. 평가 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최대 40여 명이었으나, 교육생의 사정에 따라 회차별로 차이가 있다. 수료 인원 규모 또한 프로그램 간 차이가 있다.

문예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교육생은 교육 과정 이수와 결과 발표회뿐만 아니라 교과 과정 외 취약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과 지역 행사에 초청을 받아 공연을 했다. 문예활동 특성 상, 봉사활동 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장수문화원 ‘논개골 고갯놀이’는 교육 기간 중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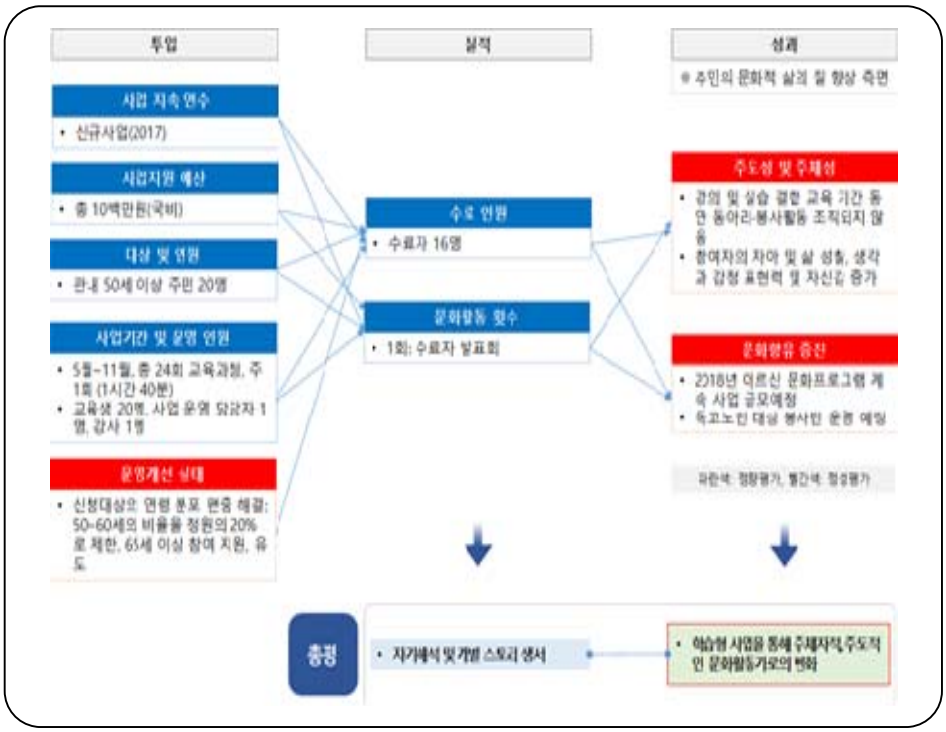
재능 나눔 활동을 펼쳤으며, 지역 행사 초청, 요양원, 소외 지역·계층을 위한 공연을 무주문화원 '할모니 하모니' 4회, 완주문화원 '화산별곡 음악봉사단' 10회, 임실문화원 '춤추GO! 나누GO!' 13회, 순창문화원 '옥천고을 대취타' 월 1~2회 수행했다. 완주문화의 집 '할머니 무릎베개' 사업을 제외하고 2017년에 선정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들은 2018년에 재공모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음악, 댄스, 풍물 등 장르에 집중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건전한 문화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농어촌 어르신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였다. 어르신들이 새로 접하는 문화 여가 활동 이해와 참여에서 더 나아가, 교육 수료 이후 지역 행사, 수료자 발표회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문화 활동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단순히 개인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혜적 프로그램이 아닌 공통 관심사가 있는 어르신들이 봉사 또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상호작용과 상호학습에 의한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하는데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2017년 추진되었던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또한 타 문화시설, 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형 문화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에서 큰 차이가 없이 강사 위주의 강습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습형 운영방식은 어르신들을 문화 향유의 수혜자 위치에 머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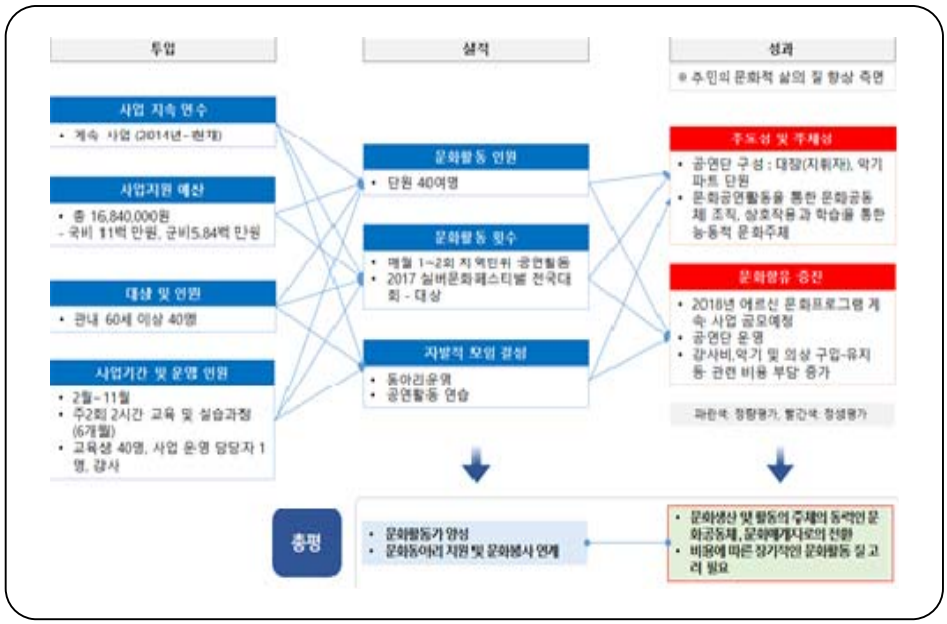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교육 수료 이후에도 동아리 활동과 봉사단 활동을 지속하여 문화 활동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주도성과 주체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 문화 활동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또한 개인 또는 관심사를 공유한 노인 끼리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단계를 넘어, 서로 다른 지역 구성원들이 문화적 경험과 특성을 공유하여 세대 간 소통과 공감에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여러 계층과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문화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원 사업별 정량적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전라북도에서 참여를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체 4개 지원 사업 중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사업과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중 일부만 참여 하였고(2016년 기준) 2017년에도 지원 사업의 참여는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비 사업 전체 수혜자수도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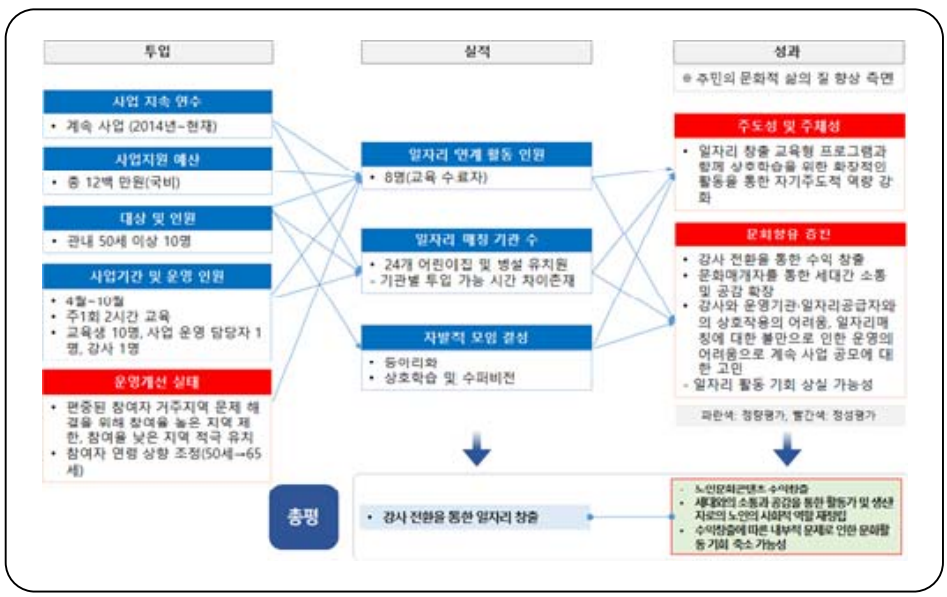
〈그림 6-2〉 '감성대화 행복한 소통'의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그림 6-3〉 '옥천고을 대취타'의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그림 6-4〉 '할머니 무릎베게'의 투입-실적-성과 지표 평가체계



3. 시사점

3.1. 특정 지역으로 사업 집중, 농촌 지역 간 격차 발생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와 콘텐츠 다양성이 부족하여 문화 소외 지역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도·농 간 노년기의 문화 여가 활동 기회를 높여 문화 향유 격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추세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 완주군은 2017년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5개가 선정되어, 농어촌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50%를 차지한다. 반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다.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고르게 확산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에 관심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한 컨설팅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3.2. 교육 과정 이후 지원 중단,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

현재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일련의 공모 과정으로 주로 4월부터 운영되며 11월에 마무리된다. 따라서 12월에서 다음해 3월 동안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수료생들이 동아리 활동 또는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이 문예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은 문화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을 문화 활동가로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어르신의 문화 향유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교육 과정 이후에 안정적인 문화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3. 단순 수혜자가 아닌, 문화 생산자로서 활동 필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어르신들이 문화 향유의 수혜자에서 주체성과 주도성을 갖춘 문화 생산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 프로그램은 여전이 강사 교육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수혜자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수혜자적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고 주도하도록 능동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어르신에게 문화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문화 향유의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경향이 있다. 문화 향유 주체로서 농어촌 지역 노인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4. 활동 특성에 따라 사업 기간 및 장소의 탄력적 운영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문화 소외 지역인 농어촌 지역 어르신에게 문화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문화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 8개 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역은 도시 혹은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문화 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문화 소외 지역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농어촌 노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우선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려면 프로그램 기간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 시행 장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4월에서 11월까지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약하고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한 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인원은 매우 한정되기 마련이다. 활동 특성에 따라 1, 2개월 단기 프로그램, 3, 4개월 프로그램 등 사업 기간을 다양화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전라북도 농어촌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지역 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농어촌 어르신의 물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측면이 있다. 문화 시설 이외

마을회관, 주민공간 등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3.5. 문화 프로그램 이후 확장성을 위한 2단계 지원 필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을 문화활동가로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화 여가 활동의 질을 관리하는데 부족하다. 지원이 종료된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의 문화 활동이 봉사단 또는 동아리 활동으로 지속되고 새로운 활동으로 파생되기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 해당 프로그램은 문화 향유 수준을 질적으로 증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업이 종료된 후 문화 여가 활동을 확장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3.6. 문화 생산자로서 활동을 위한 사업 컨설팅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 수혜자적 관점에서 문화 활동가적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문화 동아리, 봉사단 활동, 일자리 관련 활동 등을 통해 문화 향유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농어촌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여전히 음악, 무용 등의 장르적 접근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노인은 수혜자로서 위치가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능동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 노인들이 자신의 관심사 또는 다양한 테마에 기반을 두고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체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고(지역공동체, 다른 세대, 은퇴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하고 소통하여 문화를 공공영역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